

原文對譯

清 靜 經 解 說

이 성 호 옮김

財團法人 國際道德協會 一貫道

清靜經 原文

老君曰 大道는 無形이나 生育天地하며 大道는 無情이나 運行日月하며 大道는 無名이나 長養萬物하나니 吾不知其名하여 強名曰道라하노라.

夫道者는 有清有濁하며 有動有靜이라 天清地濁하고 天動地靜이요 男清女濁하고 男動女靜이니 降本流末하여 而生萬物하나라.

清者는 濁之源이요 動者는 靜之基니 人能常清靜하면 天地悉皆歸니라.

夫人神은 好清이나 而心이 擾之하고 人心은 好靜이나 而慾이 牽之하느니라.

常能遣其慾하면 而心이 自靜하고 澄其心하면 而神이 自清하여 自然六慾이 不生하며 三毒이 消滅하리라.

所以不能者는 爲心未澄이요 慾未遣也니라.

能遣之者는 內觀其心에 心無其心이요 外觀其形에 形無其形이요 遠觀其物에 物無其物이니 三者旣無라야 唯見於空하리라.

觀空亦空이니 空無所空이라야 所空即無요 無無亦無니 無無旣無라야 湛然常寂하리라 寂無所寂하면 慾豈能生이리요 慾旣不生이라야 卽是真靜이니라.

眞常應物이며 眞常得性이니 常應常靜이면 常清靜矣리라.

如此清靜하면 漸入眞道요 旣入眞道에 名爲得道라 雖名得道나 實無所得이요 爲化衆生이라야 名爲得道니 能悟之者는 可前聖道니라.

太上老君曰, 上士는 無爭이요 下士는 好爭하며 上德은 不德이요 下德은 執德이니 執着之者는 不明道德이니라.

衆生이 不得眞道者는 爲有妄心이니라.

旣有妄心하면 旣驚其神이요 旣驚其神하면 旣着萬物이요 旣着萬物하면 卽生貪求요 旣生貪求하면 卽是煩惱니라.

煩惱妄想이 憂苦身心하며 便遭濁辱하여 流浪生死하며 常沉苦海하여 永失眞道하리라.

眞常之道는 悟者自得이니 得悟道者는 常清靜矣니라.

活佛師尊 序

世道衰危，天下溺矣，日月來往，添有無窮之變幻，運數轉移，實現堪憐之景象，嘆哉！紅塵釀成處處之劫煞，衆生遭受種種之途炭，斯是天爲之歟，抑人爲之歟，悲乎朝流趨來，人人競尚維新，倫常拋棄，個個不知守禮，援救天之至道，鮮有人行之矣，惟有三教遺人，多爲形色所囿，矧是天道旋歸，眞道卷隱，修持者謹得皮毛而已，屆此天開文運之際，道劫並倡，以劫煞收殺惡孽子，以道挽救善男信女，誠是玉石分班之期，激濁揚清之時，幸爾緣深，得與爲師聚首，同助道盤，以期將來完成正果，立萬世不朽之基，成千古不泯之業，爾諸弟子，每嘆性道之不易參悟，經典之不易研究，常引爲憾事，惟此次，講論清靜經，猶難瞭解，深感

上帝慈憫，特遣茂田爲契釋義，然亦係爾等誠心格之者也，得此非常之機緣，休自輕棄，能自永持，是師之厚望焉。

남명산 도제 서

활불사존 서문

세도(世道)가 쇠하고 위태로와, 천하가 고해로 빠져버리게 되었구나! 해와 달의 오고 감에, 무상한 변화를 더하여, 운수가 굴러 옮겨져서, 차마 볼 수 없는 불쌍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허! 홍진(紅塵)세상 곳곳마다 겁살(劫煞)을 빚어내고, 증생은 여러 가지의 도란에 빠지고 있구나! 이게 하늘이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인가?

슬프다. 조류(潮流)가 닥쳐오며, 묵은 것은 제쳐놓고 새것만을 다투어 숭상하며, 윤상(倫常)을 내던지며, 누구도 예절을 지킬 줄 모르며, 천하의 지극한 도(道)를 행하는 사람이 드물구나! 오직 삼교(三教)가 있어 사람에게 끼쳐주고 있으되, 모두 형색(形色)에 붙잡힌 바 되었으며, 더욱이 천도는 다시 돌아가고, 진도는 숨어버리게 되니, 수도하는 이는 겨우 껍질과 터럭을 얻었을 뿐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구나. 하늘이 문운(文運)을 열어주시게 된 이때에 이르러, 도와 겁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겁살로써 악한 무리와 열의 씨를 거두어 죽여 없애며, 도로써 선남 신녀를 붙잡아 구언하여 주시니,

진실로 이것이 구슬과 돌을 갈라 놓은 때요, 흐림(濁)을 치고 맑음(淸)을 들어내는 시기라, 다행히도 그대들이 연분이 깊어서, 스승과 함께 모일 수 있어, 함께 도판(道盤)을 도와서 장래 정과(正果)를 완성하여, 만세(萬世)에 썩지않는 터를 세우며, 천고(千古)에 없어지지 않는 업(業)을 이루기를 기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제자들이 언제나 성도(性道)의 참오하기 쉽지 아니함과 경전(經典)의 연구하기 어려움을 한탄하여, 항상 섭섭히 생각하므로, 이번에만 청정경을 강론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딱딱히 알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상제께서 자민(慈憫)하시어, 특히 무전(茂田)을 보내시어서, 그대들을 위하여 뜻을 새기도록 하심을 깊이 감사하는 바이며, 그러나 또한 이는 그대들의 성심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이 비상한 기연(機緣)을 얻었으니 스스로 경망히 버리지 말고 오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스승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남병산 도제 서함.

序 二

嘆芸芸衆生，終日沈醉於孽海，度着無情的歲月，末劫收束的時候，遭受種種劫煞，真是悲痛萬分，慘不忍觀呢，推其原因，這都是人心不古，泯滅天良所致，孟子說：「天下溺援之以道」，道爲萬類生活的要素，中庸云：「道也者不可須臾離也」，正是證明大道的尊貴，老子爲道教之始祖，歷代以來救世的苦衷，非是筆下可以叙盡的，老子姓李，名耳，字伯陽，聖母，玄妙玉女，於殷王，陽甲庚申歲，夢五色霞光，擁太上老君，降於空際，倏變爲五色流球，入口吞食之，遂凝聖胎，孕八十一年，至殷王武丁庚辰歲，三月十五日(即夏曆二月十五日)誕於楚苦縣，賴鄉曲仁里。

聖母見天開數丈，衆真捧日而生，因手攀李樹從左脇而生，生時白首頂有圓光，生而能言動，周行九步，左手指天，右手指地曰：「天上地下唯我獨尊」，即指李樹爲姓氏，事實已詳載於道德經，周時稱爲古隱君子，孔子又有：「猶龍之嘆」實在不能測透，老子遺留的經卷很多，清靜經也是其中的一部，全書宗旨，是讓人歸依清靜的意思，但是舊本的註解，偏重於後天功夫，依着修持欲想道成天上，很是難的一件事，今時特奉

母命闡釋真意，註爲白話解說，以便容易研究，然而研究之後應當如何，俗云：「念經不如講經，講經不如依經行」，善男信女果能體意實踐，才合俺

呆叟的希望！

詩曰：

清靜經爲是真空 大開佛門神道宏

靜心能超三界外 誠意貫通六合中

經書溫故宣妙諦 道法知新闡玄宗

解釋真機先天秘 純然聖意啓愚矇

卅号 二

어허! 많고 많은 중생이 죄열의 바다(孽海)에 잠겨 취해가지고 무정한 세월을 보내며, 말겁 수원하는 때를 만나, 여러 가지의 겁살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요, 참혹한 일을 차마 볼 수 없구나!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이게 모두 인심이 예와 같지 않아(不古), 천량(天良)을 쓸어 버렸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 「천하가 빠져버리며, 도(道)로써 구원한다.» 모든 만류의 생활 요소가 되며, 증용에 이르기를 :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 하였으니, 바로 대도의 존귀함을 증명한 것이다.

노자는 도교(道敎)의 시조(始祖)가 되며, 대대로 지금까지 구세(救世)하려는 고충은, 붓으로 이루 다 나타낼 수 없을 지경이다.

노자의 성은 이(李)씨요. 이름은 이(耳)이며, 자는 백양(伯陽)이라,

성모(聖母) 현묘옥녀(玄妙玉女)가 은왕 양갑 경신년(殷王陽甲庚申歲)에, 오색(五色)안개 빛이 태상노군(太上老君)을 응위하고 공중에서 내려오더니, 그것이 금방 오색 유구(流球)로 변하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삼켜버린 꿈을 꾸었는데, 드디어 성태(聖胎)가 잉기어, 아이 밴지 팔십일년, 은왕 무정(武丁) 경진년(庚辰歲)三月十五日(곧 하나라 책력(夏曆)으로는二月十五日)에, 초(楚)나라 고헌(苦縣) 회향 곡인리(賴鄉曲仁里)에서 탄생하시었다.

성모가 보니 하늘에 고운 무늬가 몇줄기 펼쳐지더니, 여러 성진(衆眞)들이 해를 받쳐 모시고 나오는 기미가 있어 오얏나무(李樹)를 꼭 붙잡고 매달려 있으니까, 왼편 옆구리로부터 나왔으며, 그때 머리는 희고 이마에는 원광(圓光)이 있었고, 나면서 바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어, 아홉 걸음을 돌아다니면서,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하되 : 「천상 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높다.» 하셨으므로, 오얏나무 이(李)자로 성을 삼았는데, 이 사실은 이미 도덕경에 자상하게 실리어 있다.

주(周)나라 때는 그 분을 고은군자(古隱君子)라 하였고, 공자는 또 : 「아! 용 같다고나 할까! (猶龍之嘆)」 라고 하였으니, 실상은 그 전모를 완전히 헤아려 알 수 없는 일이다.

노자가 남겨 놓으신 경서가 펴 많으며, 청정경도 그 중의 일부인데, 그 근본 뜻은(宗旨), 사람에게 청정(淸靜)에 귀의(歸依)하라는 것이다. 다만 구본(舊本)의 주해는 후천공부(後天功夫)에 편벽되게 치우쳐 있으므로, 이대로 수지(受持)하여 천상에서 도를 성취하려는 것은 펴이나 어려운 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 특별히

노모님 명령(母命)을 받들어, 전의를 확실히 해석하며, 보통말로 주를 달아서 연구하기 쉽게 하였다. 연구한 뒤에는 응당히 어떻게해야 하는가? 속담에 말하기를 : 「경을 외음이 경을 가르침만 못하고, 경을 가르침이 경대로 행함만 못하다.」 고 하였다, 선남 선녀가 과연 뜻을 체득하여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나 바보 늙은이

(呆叟)의 희망이지

노래:

1. 청정은 무위이요 이것이 진공이네

불문을 크게 여니 신도는 크게 퍼져,

정심으로 능히 삼계를 초월하며,

성으로는 육함을 관통하네.

2. 경서연구 깊이하여 묘체 날리고,

도법을 새로 알아 현종을 밝히네,

진기와 선천의 비밀을 해석하니

순연한 성인의 뜻 어리석음 깨우치네.

弟 一 章

老君曰 大道는 無形이나 生肉天地하며 大道는 無情이나 運行日月하며 大道는 無名이나 長養萬物하나니 吾不知其名하여 強名曰道라하노라.

원문풀이

노군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도는 형상이 없으면서 천지를 낳고 기르며, 대도는 정이 없으면서 일월을 운행하며, 대도는 이름이 없으면서 만물을 길러 기르나니, 내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도라고 이름지어 놓는다.

「字解」

노(老)君—姓李, 名耳, 子伯陽, 諡曰聃, 爲道教鼻祖, 形—是有形可觀有跡可循的, 天地—是混沌初分時候氣之輕清上浮爲天, 氣之重濁下凝爲地, 情—是屬後天性的動如喜怒哀樂愛惡慾等, 日月—日爲火之精乃恒星之一, 月—爲水之精乃係地球的衛星也, 就是陰陽的意思, 名—能稱呼標記出來謂之名, 強—剛強不屈定而不移的意思, 道—萬事萬物所必循由之至理.

「글자풀이」

노군(老君)—성은 이(李)씨요, 이름은 이(耳), 자는 백양(伯陽)이요, 시호는 담(聃)이라, 도교(道教)의 시조가 되었다.

형(形)—형상이 되어 볼 수 있고 자취가 있어 쫓을 수 있는 것, 천지(天地)—원시에 혼돈한 것이 처음 나눌 때. 기(氣)의 가벼고 맑은 것은 떠 올라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내려가 엉기어서 땅이 된 것이다. 희(喜=기쁨), 노(怒=성냄), 애(哀=슬픔), 락(樂=즐거움), 애(愛=사랑함), 오(惡=미워함), 욕(慾=욕심) 등과 같다. 일월(日月)—일은 불의 정(火精)으로서 항성(恒星)의 하나요, 월은 물의 정(水精)으로서 지구에 딸린 위성(衛星)이다. 곧 음양(陰陽)이라는 뜻이다. 이름(名)—무엇이라고부를 수 있고 표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 억지로(強)—단단하고 굳세어 굽히지 않고 확정하여 옮기지 못한다는 뜻, 도(道)—만사만물이 반드시 따라 말미암는 지극한 이치(理).

「章解」

老子曰：大道本來沒有形象，但是能夠生天育地，本來無情感，可是能夠運轉日月的週流，本來無名可以標記的，可是能夠變理陰陽，生發消長養成天地間的萬物，如此玄妙我不知道他的字是甚麼，又怕後人無所是從，就依据天理推測，起了一個定而不可移的名字，就叫着道。

「대문풀이」

노자 말씀이 : 「대도는 본래 형상이 없으나 넉넉히 하늘과 땅을 낳고 기를 수 있으며, 본래 감정이 없으나 해와 달의 돌고 흐름을 운전할 수 있으며, 본래 표기할 만한 이름이 없으나, 음양을 섭리(變理)하여 천지간의 만물을 발생(發生)하여 성하고 쇠하게(消長)하며, 길러 성취하여(養成) 놓는다. 이와같이 현묘(玄妙)한 것을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지마는, 후운(後人)이 쫓아갈 바가 없을까 두려워 하여 천리(天理)에 의거하고 추리하여서 꼭 알맞는 이름을 하나 지었으니 그것을 「도(道)」라고 부를 것이다.

「演說」

甚麼是道，就是無爲的真理，萬事萬物 必然循由的路徑，他雖然無形無象，內含玄機奧妙，盡用俗人的眼光，是不會看透了，所以世人多以此爲迷信，不知內蘊真意，竟作無稽之談，真乃管中窺豹只見一斑。

老子悲天憫人一片濟世的苦衷，真令人懷念千古，是永久不能忘掉的，就是世界上，所留的經典，如道德，黃庭，清靜等經，無一不是真機妙理，無一不是性理秘訣，堪嘆後之學者，多有智者落於頑空，愚者流於執相，這空而不空的真理，是不易測透的，孔子尚有「猶龍之嘆」，何況平庸的俗子，更不能見其真相，即清靜一經，多有認爲推添搬運吐納的功夫，以訛傳訛，真是遺悞不淺，有者依此修持，真如抱磚磨鏡，百無一成，有負

老子在天之靈，這是多麼悲嘆的事啊！現在天道應運降世，明師承命普渡衆生，以神道說教來挽化苦海中的迷子，浩劫即在目前，時機不容稍緩，大聲疾呼，願億萬生靈，得登濟世之慈航，呆叟承領。

上帝之聖之，各地宣化成全，見研究清靜經的人們，多因註義未明，深感困難，俺爲方便明瞭起見，所以借機註釋白話解說，以作研究者的參考。

老子首章說到! 無形! 無情! 無名的原理, 也就是道德經所說的「無名的樸」, 生機一動而能生育天地, 運行日月, 長養萬物, 這無爲的妙用, 真是只可意會而不可言傳呢.

北海老人曰: 「畫前之易非神難見, 不傳有道非聖難知」

老子爲聖爲神以這無爲妙理, 立名曰: 「道」絕不相強, 無奈現世的人們, 崇尚科學, 執於形象, 故以不可捉摸的真理, 則無人過問了, 那曉得科學之所由來, 原出自哲學, 世人多稱哲學, 爲科學之母, 並稱.

老子爲哲學的鼻祖, 因哲理本屬抽象, 故世人多有不知, 詩經上說的, 「明哲呆身」也就時讓人明道的意思, 大道深遠不能一言而盡其義, 所以

大學上說: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則近道矣」, 希望同胞弟兄, 努力進步研究, 自能智慧大開, 照穿一切, 無處不是光明呢.

「연설」

도라는 것이 이것인가, 그것은 무위(無爲=함이 없음)의 진리이며, 만사 만물이 반드시 쫓아가고 말미암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형(形)이 없고 상(象)이 없으나, 그 속에는 현기묘묘(玄機奧妙)가 들어있어서, 속인(俗人)의 안광(眼光)으로는 아무리 하여도 완전히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모두 이것을 미신(迷信)이라 하여, 마음속깊이 감추어 있는 참뜻을 알지 못하고, 필경은 허황한 이야기라고 하니 참으로 대통으로 표범(豹)을 들여다 보아, 그 얼룩점무늬 하나밖에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노자께서 하늘이 슬퍼하고 사람을 가엾게 여기어, 세상을 건지려는 일편의 고충은, 지실로 사람으로 하여금 먼 그 옛날을 생각해 하며 영구히 잊어버릴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전하여져 있는 경전(經典) 즉 도덕경(道德經)이나, 황정경(黃庭經)이나 청정경(淸靜經)들이, 하나도 진기묘리(眞機妙理)아님이 없고, 하나도 성리비결(性理秘訣)이 아님이 없건만은, 후세의 학자들은 흔히 슬기롭다는 이는 아주 완공(頑空)에 빠지고, 어리석다는 이는 그저 형상에만 붙들리어서, 이 「텅비었으되 비이지 않다(空而不空)」는 진도리(眞道理)를, 밑바닥까지 헤아리어 알지 못하니, 딱한 일이다. 하기는 공자도 오히려 「아아! 용(龍)과도 같구나!」 하고 탄식한 일이 있으니까. 하물며 보통 속인으로서야 어디 그 진상을 볼 법이나 한 일인

가? 즉 청정 일경을 「추점(抽添)하고 반운(搬運)하고 토납(吐納)하는 공부」인 줄 알고, 틀림으로써 또 더틀리게 전하고 있으니, 이거 참 어긋나도 여간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의지해서 수도하는 이가 있다면, 바로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노자의 영혼을 저버림이 되니, 이 얼마나 비탄(悲嘆)할 일인가! 현재 천도가 운(運)을 따라 이 세상에 내리게 되었으며, 명사(明師)가 천명을 받아 중생을 널리 건지며, 신도로써 교를 베풀어(神道設教), 고해(苦海) 가운데에서 헤매는 이를 구원해서 화하게(挽化)하고 있으며, 기막히게 큰 겁살이 눈앞에 닥쳤으므로, 느장부림으 용납하지 아니하니 큰소리로 외쳐서 억만 생령(生靈)들은 세상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배로 올라 탈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바보 늙은이(呆叟) 내가

상제님의 거룩하신 뜻(聖旨)을 받자와, 각지에서 선화(宣化)하고, 성전(成全)하고 있으며, 청정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흔히 주(註)와 의(義)를 환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펍 곤란한 모양이므로 내가 그 방법을 똑똑히 알리기 위해서 기필(機筆)을 빌어, 쉬운 말로 풀이하여 연구하는 이의 참고로 삼으려는 것이다.

노자께서 첫머리 글 일장(一章)에 말씀하신 「형이 없고(無形). 정이 없고(無情), 이름이 없다(無名)」는 원리도, 그것이 도덕경(道德經)에서 말씀하신, 「이름없는 한떨기 나무등거(無名的樸)」이라 하는 것이니 기회가 생기어 한번 음직이며, 천지를 낳고 기르며, 일월을 운행하며, 만물을 기르는, 이 함이 없는(無爲) 묘용(妙用)이야말로, 참으로 뜻만은 알 수 있지만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일이지!

북해노인(北海老人)이 말씀하시기를, 「앞 일을 그려놓은 역수를 신이 아니면 알기 어렵고 전하지 아니하는 도가 있음을 성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畫前之易非神難見, 不傳有道非聖難知.)」고 하셨으니

노자께서 성(聖)과 신(神)을 위하여 이 함이 없는 묘리(無爲妙理)로써 이름을 「도(道)」라고 지으셨으면, 이는 절대로 억지쓰는 일이 아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과학을 숭상하며, 형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眞理)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찾아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어찌 할 수 없는 노릇이지, 과학의 유래를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건가? 그것은 원래 철학(哲學)에나 아온 것인데, 세상 사람이 모두 「철학은 과학의 어미요, 또 노자는

철학의 시조」라고는 하지만 철리(哲理)가 본래 추상(抽象)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시경(詩經)에 「환하게 밝아서 몸을 보전한다(明哲保身)」고 한것도 사람더러 도를 밝히라(明道)는 뜻인데, 대도(大道)의 깊고 먼 뜻을 한마디 다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대학에는 「물건에는 근본과 끝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처음이 있으니, 먼저하고 뒤에 할바를 알면, 도에 가까우리라(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고 하였다.

바라건대 동포형제여! 노력하고 나아가 연구하여서 지혜가 저절로 크게 열리게 하여, 모든 것을 깨뜨려 비추며 광명아닌 곳이 없게 하라.

「詩曰」

無形無象更無疆 一理流行貫八荒
萬物長養天地育 五行生剋日月光
眞空非空含妙相 無爲有爲透玄黃
緣深能得明師點 了達聖業永留芳

「노래」

1. 모습없고 생김없고 한계도 없는

한 이치 두루 흘러 여덟 황원 깨뜨네

만물이 잘 자라고 천지도 살며.

오행 상생 상극에 일월 빛나네.

2. 진공이 공 아니요 묘상 품어서.

무위가 유위라오 현황 환하지.

연분 깊어 얻어진 명사의 일점

성업에 요달하니 길이 꽃다워.

第二章

夫道者는 有淸有濁하며 有動有靜이라 天淸地濁하고 天動地靜이요 男淸女濁하고 男動女靜이니 降本流末하여 而生萬物하니라.

「원문풀이」

대저 「도라」 라는 것은 맑음과 흐림이 있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으니, 하늘은 맑고 땅은 흐리며,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며, 사내는 맑고 계집은 흐리며, 사내는 움직이고 계집은 고요한지라, 근본에서 내리어 끝으로 흘러서 만물이 생하는 것이다.

「字解」

淸—空虛純潔의意思, 濁—汚濁不淨의意思, 動—移動作爲의意思, 靜—寂然安止의意思, 降本—分賦의意思, 流末—造成的象.

「글자풀이」

맑음(淸)—공허하고 순하다는 뜻. 흐림(濁)—더럽고 흐리어 부정함. 움직임(動)—움기고 움직이며 서들러 한다는 뜻. 고요함(靜)—소리 없이 편안히 그쳐 있음. 근본에서 내림(降本)—분부함. 끝으로 흐름(流末)—만들어 이루는 형상.

「章解」

這包羅萬象의道理, 無微不至無所不含, 也有純潔, 也有渾濁, 也有動機, 不過在他沒有發現出來的時候, 憑俗人的眼光, 是看不出來的, 用無爲大道推測才知道, 男秉乾道而成, 所以爲淸爲動, 女秉坤道而成, 所以爲靜爲濁, 一切動靜, 淸濁의眞理, 都是由根本賦下來的, 陰陽相感眞理寓乎其中, 自然會生出天地間的萬物來.

「대문뜰이」

이 모두 현상을 포라한 도리가. 아무리 작고 희미하더라도 안 달는데가 없으며 포함하지 않음이 없어, 순결함도 있고 혼탁함도 있으며, 동하는 기틀도 있다. 다만 그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속인(俗人)의 눈에는 그 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함이 없는(無爲) 큰 도리로서 추측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데, 사내는 건도(乾道)를 잡아서 이뤄졌기 때문에 고요함(靜)이 되고 흐림(濁)이 된 것이다.

모든 동과정 청과락의 진리가 모두 근본에서 품부함에 말미암은 것이며, 음양이 서로 느끼는 진리도 그 속에 들었으므로 자연 천지간의 만물을 생하게 되는 것이다.

「演說」

這一章是一本散於萬殊的意思. 無極一動, 分晰出天覆地載之消長, 陰陽動的變化, 普遍週界. 人人各俱一理, 物物各俱一性. 所以易經上說. 「乾作大始坤作萬物.」 降本流末, 曲成萬物而不遺, 這正是

上帝造物的起端. 但是

上帝爲了生天地造萬物. 一點也不惜力, 也不辭勞, 將世界治理的應有盡有. 讓衆生來享受這一切幸福. 最可悲嘆的是衆生只知安樂享受, 便忘了法天則地的大道. 看現在社會一般沉醉的男女們, 真是污濁不堪, 衣冠禽獸觸目皆是. 惟怨穢了俺

呆史的筆, 也就不在一一的, 剝露其真相了, 芸芸衆生, 貪生怕死, 遭受風塵的理沒, 汨滅自己的良知良能. 對於無爲的道理 更是石沉大海, 消滅的無影無形了. 更加利益薰心, 早將天理良心丟在腦後, 沈海夢鄉, 一味溫柔, 被情枷枷的特緊, 愛鎖鎖的特嚴. 那有功夫來研究無爲的妙理, 追究性理的根源. 即便李些修道的人們, 不是銅牆鐵壁無門而入. 便即宿孽太重明師難遇. 否則智者過之, 愚者不及, 所以惹的孔子嘆息: 「道其不行久矣」的話.

「연설」

이 한 대문은 근봉이 만수(萬殊)로 흩어진다는 뜻이다.

무극(無極)이 한번 움직이며 하늘이 덮어주고(天覆) 땅이 실어주는(地載) 소장(消長)의 분석해 내며, 음양이 움직이는 변화는 온 세계에 가득 번져서 사람마다 각각 한 이치(一理)를 갖추었고 물건마다 각각 한 성품(一性)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건(乾)은 대시(大始)가 되고 곤(坤)은 만물을 짓었다.」 하였으니 근본에서 내리어 끝으로 흘러서 갖가지로 만물을 이루되 빠짐(遺)이 없다는 뜻이요 이게 바로,

상제(上帝)께서 조물(造物)하시는 맨 처음이다. 다만

상제께서는 천지를 생하시고 만물을 만드심에 조금도 힘을 아끼지 않으시며 수고를 사양하지 않으시어 세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있게 한다. 중생(衆生)들에게 일체의 행복을 다 받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가장 슬퍼하고 탄식할 일은 중생이 다만 안락하고 호강할 줄만 알고 하늘을 법받고(法天) 땅을 본받느(則地) 대도를 문득 잊어버린 일이다.

현재 사회에 푹 취한(沈醉) 일반 남녀들을 보면 참으로 더러워 볼 수 없고, 눈에 뜨이는 것마다 의관을 차린 새 짐승(禽獸)이라.

나 바보 늙은이의 붓이 더러워질까 무서우며 또 그 진상을 날날이 파해칠 것도 못된다.

많은 중생들은 살기를 탐내고 죽기를 무서워 하기 때문에 세속 풍진을 만나 그 속에 파묻혀서 자기의 양지 양능(良知良能)인 본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무위의 도리에 대하여는 더구나 큰 바다속에 조그마한 돌맹이 하나 들어간 것처럼 그림자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갈수록 더욱 이익에 마음이 끌리어 천리와 양심(天理良心) 같은 것은 벌써 뒷전으로 하였다. 깊은 지옥 속 꿈 세상에서 헤매며 한갓 온화하고 부드러운 규방의 애정에 빠져 그 가쇄에 꼭꼭 묶이고 얽히어 꼼짝 못하고 있다. 어떻게 시간을 얻어 무위의 묘도(無爲妙道)를 연구하며 성리의 근원(性理根源)을 궁구할 것인가?

아무리 약간의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통창철벽도 아니며 쳐들어갈 문이 없는 사람도 못되는지라, 당장 묵은 죄孽(罪孽)이 너무 중하여 명사(明師)를 만나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슬기롭다는 이는 지나치고(智者過之) 어리석은 이는 미치지 못하는(愚者不及)구나! 그래서 공자는 「도가 못 행한지 오래로다!」 하고 탄식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詩曰」

聖意罔極混沌初 皇恩一本散萬殊
乾坤栩栩參造化 動靜如如盡功夫
激濁揚清道悠遠 法天則地德不孤
若趨聲色沉孽海 濤濤波浪幾時出

「노래」

1. 성은이 망극하다 혼돈하던 때
황은이 근본 한가진데 흠으면 만수
건곤이 짝 째어서 조화 이루니
동과정 알맞도록 공부 다하세
2. 격탁양칭하는 도 아득히 멀고
법천즉지하는 덕 외롭지 않네
성색을 탐내다간 열해에 빠져
한많은 유량생사 언재나 벗어날고.

第 三 章

清者는 濁之源이요 動者는 靜之基니 人能常清靜하면 天地悉皆歸니라.

「원문풀이」

맑음은 흐림의 근본이요. 움직임은 고요함의 바탕이니, 사람이 능히 항상 맑고 고요하면, 천지가 다 돌아오게 된다.

「字解」

源—是根本源流，基—根底基礎，悉—是。

「글자풀이」

근원(源)—흐르는 물의 맨 처음. 바닥(基)—밑바닥 기초. 모두(悉)—모두다.

「章解」

這玄妙無邊的大道理，就含着清濁動靜呢，可是細心追究輕清的天，還是重濁之地的起源呢！因九重宗動天，本係一氣流行而屬於動。可是却為地靜之基呢！人若是能夠至誠無息的，常常清靜，自然連天地，都歸納在你的本性中呢！

「대문풀이」

이 현묘한 무변한 대 도리는 청, 탁, 동, 정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잘 살피어 궁구하면, 가볍고 맑은 하늘과 무겁고 흐린 땅이 기원이란 말이야! 또 구중 종동천(九重宗動天)이라 함도, 본래는 한 기운이 흘러 행한(一氣統流天) 것이라 움직임(動)에 속하지만, 도리어 땅은 고요함(地靜)의 바탕터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지성하여 꾸준히 쉬지 않으면 언제나 맑고 고요하며, 자연히 온천지까지도 모두 그대의 본성 속에 귀납(歸納)하게 되는 것이다.

「演說」

這一章是讓人知本的意思，前章說的降本流末，字義非常深遠，恐怕戀末失本的人，所以

老子再在叮囑，這樣的苦心，真是令我，呆叟也萬分的感激呢！而且又含着回轉先天的功夫。後人多以此為搬精煉氣之解。實在貽誤不淺。本來清濁動靜皆屬後天，如先天無極之真理，那就是無所謂了。清者現而易見的，是氣而言；濁者就是象了。都知道由理而生氣，由氣而生象；所以地之為物，也不過是氣包中一彈丸而已。故此清是濁的源頭呢！本來一有人身即是後天。當初天生人的時候，是秉受陰陽之氣，一貫真理而成形。男秉乾道為清為動，女秉坤道為濁為靜，

故男子爲女子主，女子爲男子的助。聖人所說的「出嫁從夫」，卽是此意。不過現在的人不知根本，不知道德，以致陰陽乘舛，男舛，男女不分，綱常不整。以今昔之比較，實有天堂地獄之分別。寫到這個地方，不由替世人担把汗，如是永墮沈淪，何日出頭露面。幸今

皇母慈憫，眞道復興，教人明白這個道理，看破紅塵，衝破枷鎖。果能常清常靜，視天地爲逆旅，知光陰爲過客，瀟瀟栖栖逍遙界外，眞如在世的神仙。不拘于聲色，不囿於五行。眞是到這個地方，連天地都歸納到自己的本性中了。

「연설」

이 한 대문은 사람에게 근본을 알라(知本)는 뜻이다. 앞 대문에서는 강본류말(降本流末)을 말하였는데, 글 뜻이 매우 깊고 멀어 사람들이 말단을 그리워하여 근본을 잃어버리릴까 두렵다.

노자께서 제삼 이르고 또 타일러서 일깨워주신 이러한 고심을 살필 때 나 바보 늙은이도 만분의 감격함을 금치 못하겠는걸!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선천(先天)으로 회전(回轉)하는 공부(工夫)의 뜻이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반정련기(搬精煉氣=정수를 날라다가 기운을 단련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실상은 틀려도 무척 틀린 일이다.

본래 청. 탁, 동, 정(淸濁動靜)이 모두 후천(後天)에 속하는 것이고 선천의 무극진리(無極眞理)는 무엇이라 말할 바가 없는 것이다.

청(淸=맑은 것)은 나타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기(氣)를 가리키어 말함이요. 탁(濁=흐린 것)은 곧 형상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거니와 이(理)에서 기(氣)가 생하고 기에서 상(象)이 생기는 것이므로 땅의 물건됨도 기포(氣包)거품 속의 한낱 탄환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맑음이 흐림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본래부터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곧 후천인 것이며. 당초에 하늘이 살마을 낳을 때에 음양의 기 즉 일관의 진리를 받아 태어나게 한 것이다. 사내는 건도(乾道)를 점지하여 맑음이 되고 움직임(動)이 되며, 계집은 곤도(坤道)를 점지하여 흐림이 되고 고요함(靜)이 되는 고로 남자는 여자의 주인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보조자가 되는 것이다.

성인이 말씀하신 「출가하면 지아비를 좇는다(出嫁從夫」가 곧 이 뜻이다. 그런데 현재 사람들은 근본을 모르고 도덕을 몰라, 음양이 뒤죽박죽이며 남녀가 뒤섞이며 강상(綱常)이 정연(整然)치 못한지라,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니, 실로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써 내려오니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손에 땀을 뒹고 아슬아슬하며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영영 지옥에 떨어져 언제 뛰어올라 얼굴을 내놓고 햇빛을 보게 될 것인가? 다행히도 이제

황모께서 자민하시어 진도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에게 이 도리를 명백히 가르치며 흥진 세계를 헛것으로 알아보고 그 형틀과 쇠사슬을 벗어난다. 관연 항상 맑고 고요하여 천지를 나그네 길로 보며 광음을 과객으로 알게 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훨훨 이 세상밖에 소요함이 진실로 속세에 살고 있는 신선과 같다. 성색(聲色)에 구애되지 않고 오행에 구속되지 않는다. 진실로 이점에 이르면 천지도 모두 자기의 본성 속에 귀납되어 버린 것이다.

「詩曰」

萬物之靈人獨尊 性統四端智慧深
奇塵有性當知本 處道無爲但率眞
總戀聲色失覺路 難免沈淪困迷津
願爾歸依常清靜 誠報天恩與師恩

「노래」

1. 만물의 영 늙대도 사람만 못해

인의예지 갖추 본성 지해도 깊네

속세에서 본성 찾아 근본을 알면

함미 없는 길 따라 진리 따르라.

2. 소리와 빛 그리워하면 길을 잃느니

고해에서 헤매다 지옥엘 가네

그대들 언재나 청정에 귀의하여

노모님과 명사님 은혜 갚기 바라네.

第 四 章

夫人神은 好淸이니 而心이 擾之하고 人心은 好靜이나 而慾이 牽之하느니라.

「원문풀이」

대저 사람의 원신은 맑음을 좋아하나 마음이 흔들고, 사람의 마음은 고요함을 좋아하나 욕심이 잡아 당기니라.

「字解」

神—陰陽不測之亦猶性也. 牽—是引之使前牽動의 意思. 擾—是擾亂의 意思. 慾—是嗜慾卽性情之所好者謂之慾.

「글자풀이」

원신(神)—신령. 음양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성(性)과 같음. 잡아 당기다(牽)—끌어서 앞으로 당기어 움직이게 한다는 뜻. 흔들다(擾)—요란하게 함. 욕심(慾)—좋아서 탐내는 것 곧 성정이 좋아하는 것을 욕심이라 한다.

「章解」

上帝所賜給의 元神, 本來是純潔無染虛空의 ; 因爲受到人心의 擾亂, 便將靈明의 元神給矇蔽住了. 人降生後의 初心, 無嗜無慾, 也是很安靜의. 因漸漸의 長大

起來，知識漸開，薰陶漸染，有了私慾之念，受到俗物情慾的牽動引誘，便將人心驅使的，如失韁之馬了。

「대문풀이」

상제께서 내려주신 원신(元神)은 본래 순결하여 물집이 없는 허공이지만, 인심(人心)에 요란함을 당하기 때문에, 영특하고 밝은 원신이 덮어버리게 되었다. 사람이 처음 강생하였을 때의 마음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였으나 차차 커갈수록 지식이 열리고 세태에 물들어 사욕(私慾)의 생각이 일게 되며, 속물과 정욕(俗物情慾)에 끌리고 꺾임을 받기 때문에 곧 인심을 이리저리 몰아 부리어, 고삐 놓친 말처럼 되어 버렸다.

「演說」

前章所說到「人能至誠不息的常常清靜，連天地都要歸納在本性中」，正是孟子所說的：「萬物皆備於我矣」。但是苦海波浪濤天，私慾橫流，那一個能歸依清靜之道呢！盡作些妄貪妄取，不仁不義的事，被那七情六慾的纏擾。多數的人都是染上不良的嗜好。小則害身喪命，大則傾家亡國。看到世界，咱家不由掩面李泣，咳！「英雄有淚不輕彈。只因未到傷心處」。多少佛子都入了迷魂大陣，不但不知覺悟，反而以害爲利，以苦爲樂，愈趨愈下，沈淪到無底的深坑。孔子有云：「民吾同胞物亦同與」，不忍人物遭此殘酷的酷劫，更不忍良莠混淆玉石同焚。當知孔子所說的：「天下溺援之以道」故應此時，

上帝降下濟世的寶筏，復差傳道明師，普渡三曹大施宏恩，又令諸天神聖同助弓長，故而真宗闡明直指人心，見性成佛，重註三教經典，大闡一貫之淵源，挽化衆生回心向善，方能脫出這無情的漩渦。然而

上帝所賦的真靈，因久被風塵埋沒，已然明而不明；這一章書是說的：「人心惟危，道心惟微」，理性受到氣性的包圍，人心受到物慾的引誘。也就是理蔽氣，氣蔽物的意思。久迷本面，喪失真常，如此以使不能擺脫，總是輪迴轉變，何等苦惱！

諺云：「苦海無邊回頭是岸」。希望衆生早日覺悟，早得一日超脫；才不負俺

呆叟這一片濟世的苦心呢！

「연설」

앞 대문에서 말한 : 「사람이 능히 지성으로 쉬지 않고 항상 청정할 수 있으면 온 천지가 모두 본성 속에 귀의하게 된다.」 함은 바로 맹자가 말씀하신 : 「만물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과 같다.

다만 고해의 파도는 하늘을 지고, 사육은 함부로 날뛰니, 누가 청정의 도에 귀의할 수 있겠는가! 모두 망령되이 탐내고 망령되이 취하며, 인자하지 못한 일과 의롭지 못한 일을 하여, 저 칠정과 육욕에 붙잡히고 흔들림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좋지 못한 취미에 물들어 버려서, 작게는 몸을 해치고, 목숨을 잃으며 크게는 집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를 보니 우리는 낯을 가리우고 울지 않을 수 없다. 슬프다! 「영웅은 눈물이 있는지라 경솔히 쓰지 않지만 다만 아직 슬퍼할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상당히 많은 불자(佛子)들이 모두 미혼대진(迷魂大津=아주 어둡고 깊은 지옥)에 빠져, 깨달을 줄을 모를뿐 아니라 도리어 해되는 것을 이롭다 하고, 괴로움을 즐겁다 하며, 갈수록 더하여, 밑바닥 없는 지옥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공자께서 : 「백성들이 모두 나와 동포 형제요. 만물도 만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고 하신 일이 있는데 사람과 만물들이 모두 이 잔혹한 호겁을 당하는 꼴을 차마 볼 수 없고, 더구나 현량(賢良)과 쪽정(莠)이 함께 휩쓰리며, 구슬과 돌맹이가 함께 물려 타버리는 꼴을 차마 볼 수 없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신 : 「천하가 빠지면 도(道)로써 구언한다.」는 걸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때를 응하여

상제께서는 세상을 구제하는 보벌(寶筏=보귀한 배)을 내리시고, 또 도를 전하는 명사(明師)를 보내시어 널리 삼조(三曹=인간, 기천 대선, 지부의 귀혼)를 건지도록 크고 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제천신성에 명령하시어 함께 궁장(弓長)을 돕게 하시니, 진종(眞宗)이 확실히 나타나서, 인심을 바로 가리키어(直指人心), 본성을 보아 성불(見性成佛)하게 하며, 거듭 삼교의 경전을 주해하여 일관(一貫)의 연원을 크게 천명하며 증생을 이끌어 회심향선(回心向善)하게 하여, 이 무정한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상제께서 주신 진령(眞靈)은 오랜 동안 풍진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벌써 밝았어야 할 것이 밝지 못하고 있으니, 이 때문은 「인심은 오직 위태하고, 도심은 오직 희미하다.」는 말이며 이성(理性)은 기성(氣性)의 포위를 받게 되었고, 인심은 물욕의 꾀임을 받게된 것이다. 다시말하면 이(理)가 기(氣)에 가리우고 기(氣)는 물(物)에 가리웠다는 뜻이 된다. 오래도록 헤매며 본래 면목을 못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윤회 속에서 돌고 도니 얼마나 괴롭고 걱정스러운 일인가!

속언에 : 「고해는 가이 없으나 머리를 돌리면 바로 저 언덕(극락)이다.」 고 하였으니 증생들은 어서 깨달아서 하루라도 일찍 초탈(超脫)하기 바란다.

그래야 나 바보 늙은이의 제세(濟世)하려는 고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되리라.

「詩曰」

人心好靜慾多牽 勸君當將六門關
修神誠意惟格物 清心寡慾須戒貪
實用四勿常克己 體行八德時格天
一念不生無可掃 金丹不煉自然圓

「노래」

1. 인심은 고요하기를 좋아해도 욕심이 끌고,

그대들 육문 닫기를 원하노니.

수신 성의 공부는 오직 격물뿐이니

성심과욕하려면 탐심 삼가라.

2. 사물을 실천하여 극기 지키며

몸소 팔덕 행하며 천리에 이르고

일념도 안나오면 쓸을 것 없고,

금단은 단련 알아도 자연 원만해.

第 五 章

常能遣其慾하면 而心이 自靜하고 澄其心하면 而神이 自清하여 自然六慾이 不生하며 三毒이 消滅하리라.

「원문풀이」

항상 그 욕심을 능히 버리면 마음이 스스로 고요하고, 그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면, 원신이 스스로 맑아서, 자연히 육욕이 생기지 아니하며, 삼독이 없어질 것이다.

「字解」

遣—是格除的意思. 澄—是由濁入清的意思. 六慾—色. 聲. 香. 味. 觸. 法. 三毒—貪. 嗔. 痴. 自然—是無所勉強之意

「글자풀이」

놓아버리다(遣)—없애다. 가라 앉히다(澄)—흐림으로부터 맑아지게 함. 자연히(自然)—힘써 할바가 없이. 육욕(六慾)—색. 성. 향. 미. 촉. 법. 삼독(三毒)—탐. 진. 치.

「章解」

如果能夠永久的, 將一切私慾雜念格除了去 ; 人心自能平靜不妄動了. 心不妄動再加上澄清的功夫 ; 元神自能洒洒陀陀, 虛空寂靜, 一點掛碍也沒有了. 不用再去造作勉強. 色. 聲. 香. 味. 觸. 法...決不會再發生出來. 貪. 嗔. 痴也就消滅的無蹤了.

「대문뜰이」

만일 언제나 영원히 일체 사욕과 잡념을 제거함에 이르면, 인심은 스스로 편안하고 고요하여 망동하지 않는다. 마음이 망동하지 않는위에, 안정되게 공부를 더욱하면 원신은 저절로 시원히 높이 솟아올라, 허하고 공하며 고요하고 깨끗하여, 일점의 거리낌도 없다. 억지로 애써서 없애려고 할 것이 없. 색. 성. 향. 미. 촉. 법이 다시 발생할 수 없다. 탐. 진. 치도 발자취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演說」

這一章是歸本還原，明善復初的意思。雖然說是遣慾心清，但是行起來，完全都是自然功夫。大學上說的：「格物」，中庸常說的：「戒慎乎其所不覩，恐懼乎其所不聞」，和道德經上說的：「不見可欲，使民心不亂」，都是讓人克己率性的秘訣。不過人心一動，便會生出許多變化，佛云：「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一着動機六門大開，眼要貪色，鼻要貪香，舌要貪味，耳要貪聲，心觸俗情，意生貪求。嗟呼！五色令人目盲，五味令人口爽，五音令人耳聾。如此則神不安舍，不知發生多少可惜可悲的事呢！若是能依着顏夫子的四勿：「非禮勿視，聽，言，動」那能不達到克己福禮天下歸人呢！楞嚴經上說：「菩薩見慾如避火坑」衆生亦被聲色而迷，苦苦追求，惟恐不得，那肯再躲避不納呢！凡有利於我的都要貪求，稍有違逆，便生嗔恚，痴心迷理，而生出許多障礙來，衆生因迷於六慾三毒，着於色相，故不得見如來。今時得道佛子，不緣深厚，明理處修，自能一步直超。果有遣慾澄心，全始全終之志，不生半途而廢之心，自無功虧一簣之嘆。遵而行之，自能達到心靜神清的功能了。

「원문뜰이」

이 일장은, 귀본환원(歸本還原=원래의 근본 자리로 돌아감)과 명선복초(明善復初=밝게 알고 착하게 행하여 태초의 모습으로 되돌아감)의 뜻을 말한 것이다. 비록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함을 말했지만, 다만 실행하기로 말하면 완전히 모두 자연공부 뿐이다.

대학에서 말한 「격물(格物)」이나, 증응에 말한 「그 보지 않는 바를 삼가하고 그 듣지 않는 바에 두려워 하라.」 그리고 도덕경에서 말한 「하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아야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다。」가 모두 사람들에게 극기 솔성(克己率性=제 생각을 이기고 본성을 쫓아감)하게 하는 비결이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움직임에 바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며, 마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법도 다 없어진다.」 하셨다. 마음이 한번 어느 동기에 집착하면 육문이 크게 열리어 눈은 색을 탐내려 하고, 코는 향기를 탐내려 하고, 혀는 맛을 탐내려 하고, 귀는 소리를 탐내려 하고, 마음이 속정(俗情)에 접촉하면 뜻은 탐구를 낳게 되니, 아빨사!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하며, 오미(五味)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며,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니, 이렇게 되면 원신이 제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얼마나 애처롭고 슬픈 일을 발생시킬지 알지 못하겠구나

만약에 능히 안부자(顏夫子)의 사물(四勿)에 따라서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도 말라」 되면, 능히 「나의 사욕을 이기고 예를 되찾으니, 천하가 다 인(仁)으로 돌아온다」 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인가!

능엄경에 말씀하기를 「보살은 욕심거리를 만나면 불구덩이를 피하듯 한다.」 고 하였는데, 중생들은 역시 성색에 이끌리어 헤매며 괴로움속에서 괴로움을 쫓아 구하여 얻어지지 못할까 두려워 하고 있으니, 어찌 다시는 이속에 빠지지 않도록 틈을 피해 나오려 할 것인가!

대저 내게 모두 이롭다는 것은 모두 탐내어 얻으려 하면서, 점점 허물어져 가면 성냄(嗔恚)과 어리석음(痴) 마음이 생기어 도리에 어두어져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어 내고 있어 중생이 육욕과 삼독에 헤매며 색상(色相)에 붙들렸기 때문에 여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득도한 불자(佛子)들은 불연(佛緣)이 깊고 두렵다. 도리를 밝히고 수도하면 일보로 바로 초탈(一步直超)할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온전한 지향(志向)과, 반도(半途)에 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면, 스스로 한 삼태기 모자라기 때문에 쌓아 온 공을 무너뜨리는 탄식도 없게 될 것이다. 이대로 쫓아 행하면, 자연히 마음은 고요하고 원신이 맑아지는(心靜神清) 공능(功能)을 이루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詩曰」

心擾慾牽苦無邊 輪迴轉變幾時停
欲覓性中眞面目 勿戀身外假虛榮
三心四相當盡掃 五蘊六慾自能空
洒洒陀陀無掛碍 何愁大道不成功

「 노래 」

1. 혼든 맘이 욕심 끄니 무궁 괴로와.

윤회 속의 변함은 끝이 없어라
본성 속의 진면목 찾으려거든
몸 밖의 가짜 허영 그리워 마오.

2. 삼심 사상 모조리 쓸어 버리면

오온 육욕 깨끗해 공을 이루고
자유자재 이내 몸 거리낌 없어
대도를 못 이룰까 걱정도 없네.

第 六 章

所以不能者는 爲心未澄이요 慾未遣也니라.

「원문풀이」

그것을 못하는 까닭은 마음이 가라 앉으며, 욕심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字解」

不能者—通俗是不能達到目的意思

「글자풀이」

못한다(不能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章解」

能字是有深遠的意思. 如其能的時候, 則可以一性圓明復合無極. 不能原因, 是因爲心中的雜念還沒有澄清, 私慾沒有除盡的原故.

「대문풀이」

능(能)자는 펍 깊고도 넓은 뜻을 지니고 있다. 만약 그것이 능하게 된 때에는, 가히 일성(一性)이 원만히 밝아지며, 무극에 돌아가 다시 합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못하는 원인은, 마음 가운데의 잡념이 아직 맑게 개이지 않았으며, 사사 욕심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演說」

這章是指修道無恒, 中途而輟子說的, 前章也曾經說過, 修道者貴乎有恒, 如愆度修而沒堅志, 自然心不能澄, 慾不能遣; 果立下決心, 則事無不成功的. 論語上說: 「士不可不宏毅」, 諺云: 「志不立, 天下無可成之事」: 何況修道更貴乎專一, 否則說的: 「天花亂墜, 地湧金蓮」, 不能知行合一亦是枉然. 常言: 「空談無補」也是警告言過其實的人說的. 如能體道修持, 定能返本, 拿把握, 不怕荊棘, 雖有千魔萬考, 也不能生退縮之心. 當知冤孽不了, 難把鄉還; 明白這個道理, 即知魔考是成道之母. 遇有逆境, 是考人至誠; 遇有逆事, 是考人智慧. 總之不要因一念之差, 遺恨終身, 永墜輪迴, 悔之莫及; 若不早得超脫, 惟恐時不久待. 故北海老人有云: 「萬劫千生得此身, 幾回出沒幾回循, 此身不向今生渡, 更待何時渡此身」, 明透此意自悔. 往者不及, 來者可追. 甚致說到心

何能澄，慙何能遣，下章尚有研究呢！

「연설」

이 대문은 수도하다가 항심이 없어 증도에 그만 두는 자를 가리키어 말한 것이며, 앞 대문에서도 말했거니와 수도하는 이는 항심(恒心=변치 않는 꾸준한 마음)이 귀한 것이다. 만약 정성껏 닦고자 해도 굳은 뜻이 없으면 자연히 마음이 맑아질 수 없으며, 욕심이 없어질 수 없으니, 과연 결심을 꼭 정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성공못할 것이 없다. 논어에 말씀하시기를 : 「선비는 불가불 큼직하고 굳세어야 한다.」 하였고, 속언에 이르되 : 「뜻이 서지 않고는 천하에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 고 하였다. 더욱이 수도에는 전일(專一)함을 귀하게 여기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늘꽃이 떨어지고 땅에서 금빛 연꽃이 솟아난다.」 고 하더라도 앎(知)과 행함(行)이 합일되지 않고는 역시 쓸데 없는 일이다. 항상 망하기를 : 「공담(空談)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고 했으니, 이 말씀도 역시 말이 그 실상보다 지나치는 이를 경고하여 말한 것이다.

만일 도를 체득하여 닦고 지닐(修持) 수 있으면 틀림없이 반본(返本)할 수 있으니.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서, 가시밭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면 아무리 천마만고(千魔萬考)가 닥쳐 오더라도 퇴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

원열(冤孽)의 빚을 다 갚지 못하고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도리를 딱딱히 알면, 마고(魔考)라는 것은 성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연히 역경에 처하거든, 이것은 사람의 정성이 지극한가를 고험함이요. 혹시 거슬리는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고험하는 것이다. 통털어 말하면 이념의 착오(一念之差) 때문에 한편생 한을 끼치고 오래도록 윤회속에 빠져버려서는 안되느니 그 때에 가서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일찍이 초탈(超脫)함을 얻지 못한다면, 때가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북해노인(北海老人)의 말씀이 : 「만겁에 천번 나와 이생을 얻었는데 몇번 출몰(出沒)하며 몇번 돌았다. 이몸이 이생에 건너지 못하면, 다시 언제 이몸을 제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였으니, 뜻을 딱딱히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라. 지난 일은 미치지 못하나, 오는 일을 쫓을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가라 앉히며, 욕심을 어떻게 버리는 가를 깊이깊이 설명하기는 다음 장에서 다시 연구하기로 하자!

「詩曰」

眼前貨利休妄圖 勿惹風塵蕩五湖
須籍聖道成聖業 莫因凡福作凡夫
本得三寶明舊主 虔修一貫返故鄉
今生不向彼岸渡 劫後懺悔復何如

「노래」

1. 망탐마라 눈앞의 재물과 이익
 풍진을 일으키면 오호 뒤집혀
 성인 도를 쫓아야 성업 이루지
 범속 복만 따르면 범부가 된다.
2. 삼보 얻어 옛 주인 이미 밝혔으니
 이제는 일관 닦아 내 고향으로
 이생에 저 언덕을 건너지 못하면
 겁후에 참회한들 어이하리요.

第 七 章

能遣之者는 內觀其心에 心無其心이요 外觀其形에 無形其形이요 遠觀其物에 物無其物이니 三者旣無라야 唯見於空하리라.

※三者旣無의 無字. 原文作悟. 今作無字.

「원문풀이」

능히 버릴 수 있는 이는, 안으로 그 마음을 보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없고, 겉으로 그 형상을 보되 형상에도 그 형용이 없으며, 멀리 그 물건을 보되 물건에도 그 물욕이 없으니, 셋이 이미 없어야 오직 공이 드러나니라.

※ 「三者既無」의 「無」 자는 원문에 「悟」 라 하였지만 지금은 「無」 를 쓴다.

「字解」

觀—是察生機處含有通達觀其真理的意思, 見—是勿接于目而能加以辨別的意思. 也可作現出來講. 空—理之體曰空. 亦是諸法一無所有的意思.

「글자풀이」

본다(觀-관한다)—기름이 생하는 곳을 살핀다는 뜻이니. 통달하여 그 진리를 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보인다(見)—물건이 눈에 접하여 능히 판별할 수 있다. 또한 현출한다고 해도 된다. 공(空)—이치의 본체. 또한 모든 법을 하나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

「章解」

能夠遣除物慾的人, 回光返照, 內觀自心, 連心也沒有了, 那還有甚麼呢? 外觀其形, 連形也沒有了. 觀其天下的物. 連物也沒有了. 心. 形. 物, 既然都沒有了, 唯有能現出來的, 只有自己真空的真性. 心. 形. 物, 其沒有的原因, 是自己一性圓明, 超然物外, 不爲浮俗所繞, 明瞭身心幻境, 萬物無常, 不被聲色所迷, 卽然天真妙意的存. 這稱玄之又玄的性理, 真是不能一言而盡其意呢.

「대문풀이」

능히 물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광반조(回光返照)하여 안으로 그 마음 속을 들여다 보아도, 마음이라는 것마저 없으니,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겉으로 그 모양을 보아야 형용마저도 없으며, 그 천하의 물건을 보아도 물건이라는 것마저도 없다. 마음. 모양. 물건이 이미 모두 없으니 오직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란 다만 자기 진공의 진성(眞性)이 있을 뿐이다. 마음. 모양. 물건이 없게 되는 까닭은 자기의 일성이 원만히 밝아서 초연히 물질

밖으로 뛰어나와 세속에 물들지 않음이다. 몸과 마음이 환상이요 만물이 항상하지 못함을 똑똑히 알아서, 성색(聲色)에 이끌리어 헤매지 않으며 곧 천진묘의(天真妙意)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묘하고도 또 현묘하다(玄之返玄)는 성리(性理=본성의 이치)는 진실로 한마디 말로 그 뜻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演說」

這一章書是讓人破除色相，重見如來真面的意思。佛云：「凡所有相，皆是虛妄」，又云：「若以色見我，以聲音求我，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由此看來，凡是有形象的東西，都是幻虛不實的。所以

老子說：「內觀無心，外觀無形，遠觀無物」。無心自然不起慾，無形自然免除憂患，無物自然沒有貪求，三者都沒有了，才是真空生妙有的時候。若是戀相不捨，便是英久沈淪孽海，不知何日才是出頭之日呢。

再說人之色身，根本出沒無常，所以順治皇帝出家。詩上說：「未生我時誰是我，生我之後我是誰，長大成人方知我，合眼朦朧又是誰？」。可惜一般世人，把假色身視爲真寶，到處趨吉避凶，朝夕轉變，爲安然長在。於是乎又作了些上感天怒，下迫人怨的許多壞事出來。反而促短了自己的壽命。嗚呼！以假忘真味可嘆。將自己一團虛靈不昧萬劫長存的真性，反到葬到九泉之下。

老子看到這個地方，爲警世人，曾有言曰：「吾所以有大患者爲有身，及吾無身吾有何患？」是讓人明白假身之外才是真身。故臨濟禪師言曰：「真佛無形，真形無體，真法無相，真理無爲」。堪嘆世人之愚，不但不能忘其形體，反以假體爲真，殊不知現在如何榮華富貴，百年光陰，猶如彈指，三寸氣斷，色身能永在嗎？值此天道普渡，菩薩仙真臨凡助道，各人的根基又有誰知。

呆史大聲疾呼，願世人早覺迷夢，睜開你的慧眼，自看穿色相，洞觀無碍，真假認清，輕重辨明，揮起你的降魔杵，舉起你的斬慾刀，急速借假修真。一旦功圓果滿，才知道俺

呆史的話不假。

「연설」

이 대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색상(色相)을 깨쳐 없애고(破除), 여래의 진짜

모습(眞面)을 다시 찾아 보게 함이다. 부처께서 이르시되 : 「모든 색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하셨고, 또 : 「만약 색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音聲)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하는 사람이며 여래를 볼 수 없느니라。」 고 하셨다.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니 모든 형상 있는 물건은 모두 헛것이며 허망하고 실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 말씀이 ; 「안으로 보되 마음이 없으며, 겉으로 보되 형용이 없으며, 멀리 물건을 보되 물욕이 없다。」 고 하셨다. 마음이 없으니 자연 욕심을 일으킬 수 없으며, 형용이 없으니 자연 우환이 면제되면, 물욕이 없으니 자연 탐구가 없게 된다. 이 셋이 모두 없게 되면, 그야말로 진공이 묘유(妙有)를 생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형상을 그리워하여 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머리 내밀고 다시 벗어날 때가 언제 올지 모를 형편이다.

순치황제 출가시(順治皇帝 出家詩)에 말하기를 : 「내가 나기전엔 누가 나였던고, 난 후의 나는 누구인고, 다 커서 어른되어 나를 알아보려 하였더니, 눈을 감아 몽롱한지라 또 누가 될건고?」 하였다. 애석하게도 세상 일반 사람들은 가짜 색신을 진짜 보배(眞寶)로 여기며, 도처에서 길한 것만 쫓아다니고 흉한 건 피하려하고, 조석으로 변하면서, 편안하게 오래 살겠다고 한다. 그래서 또 위로는 노모님의 노여움을 사고, 아래로는 남에게 원망 받을 줄지 못한 일을 모두 저질러 도리어 자기의 수명을 더 짧아지게 재촉하고 있다. 아아! 가짜 때문에 진짜 맛을 잊어버렸으니 탄식만 나오는구나! 자기의 허하고 영특하며 어둡지 않은(虛靈不昧) 진성(眞性)이, 도리어 구천(九泉=귀혼이 사는 지하) 밑바닥에 장사 지내게까지 되었다.

노자께서 이 지경까지 되는 걸 보시고 세인을 경계하기 위하여 일찍이 : 「내가 큰 환난을 당하는 까닭은 몸을 가졌기 때문이라. 내게 몸이 없다면 무슨 환난이 있을까?」 라고 하셨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가짜 몸 외에 따로 진짜 몸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임제선사(臨濟禪師)가 말하기를 : 「진불은 형이 없고, 진형은 체가 없으며, 진법은 상이 없고, 진리는 함이 없다。」 고 하였는데 한탄스럽게도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만 그 형체를 못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짜 몸을 진짜로 여기며, 특히 현재 어느만큼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백년의 광음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밖에 되지 않아 얼마가지 않는 것인데 세치의 목숨이 끊어져도 색신은 영원히 그대로 사랑 있을건가? 천도가 내리어 보도하는 이 때를 당하여서, 보살과 선진(仙眞)들도 범속 세상에 내려와서 도무를 돕고 있는데 각 사람의 근기가 어떠한지 또 누가 알아차릴

것인가?

바보 늙은이 내가 목청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치노니, 원컨대 세상 사람들
들이여, 어두운 꿈속에서 어서 깨어나, 그대의 지혜의 눈(慧眼)을 똑바로
떠 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색상을 막힘없이 뚫어 볼 수 있으며, 진과 가를 갈
라낼 수도 있으며, 경중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마귀 쫓는 장대
(降魔杵)를 휘드려 그대의 욕심 끊는 칼(斬慾刀)을 쳐 들고서, 급히 서둘러
가짜를 빌어 진짜를 닦으면, 공과가 원만하게 될 것이다.(功圓果滿) 일단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나!

바보 늙은이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 것이다.

「詩曰」

萬緣生滅意叢叢 悟盡塵勞俱是空
放眼休觀是非事 修身勿語苦樂情
三心了劫心心了 一竅通時竅竅通
自性般若時時現 無時無地不光明

「노래」

1. 만연이 생멸하니 생각도 가지가지

깨달음을 다하면 진노가 모두 공
속세 시비 눈 돌려 보지도 말고
수신엔 말도 말라 고락의 사정.

2. 삼심을 다 버리니 맘마져 없고

한 이치 통하면 온갖 이치 다 통해
내 본성 반야로다 때때로 들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광명치 않는 일 없네.

第八章

觀空亦空이니 空無所空이라야 所空卽無요 無無亦無니 無無旣無라야 湛然常寂하
리니 寂無所寂하면 慾豈能生이리요 慾旣不生이라야 卽是真靜이니라.

「원문풀이」

공을 봄도 또한 공이니, 공에도 공할바가 없어야만, 공한 바가 곧 없음이
요. 없음이 없다는 것도 또한 없는 것이니, 없음이 없는 것마저도 이미 없
어야 항상 맑고 아주 고요할 것이다. 고요함에도 고요하다는 것 마저 없으
니, 욕심이 어찌 생길 수 있으랴? 욕심이 이미 생기지 아니하여야 곧 진짜
고요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字解」

湛然—是形容極靜的意思. 寂—安然清靜的義士.

「글자풀이」

담연(湛然)—극히 맑고 고요한 모양. 고요함(寂)—편안하고 정정함.

「章解」

上章說的：「三者旣無唯見於空」，這個「空」乃是空洞一無所有了. 如果是空
到極點，無所再空了. 所餘者是一個「無」字. 然而這個「無」字，亦應用功夫
把他沒有了. 到此地步，連個「無」的功夫都不應存在. 因有所住卽不爲真空，
如何能生妙有呢? 旣然「無」的名字「無」的功夫都沒有了，這時方算入於清

幽常久的安靜呢。但是寂靜到了極點，亦不知其所寂了。此時心性，已然離開塵俗的境界，私慾雜念怎能夠再生起來呢？私慾雜念之心，既然不能再生，這才是真實的清靜呢。

「대문풀이」

앞 대문에서 : 「셋이 이미 없어야 오직 공이 나타나리라.」 고 말하였는데 이 「공(空)」은 결국 환하게 비어서 있다고 할 바가 없다. 만일 이 공이 더 빌 수 없이 극점에 달하면, 다시 더 빌 바가 없게 되므로, 남은 것은 없음을 무(無)자 하나이다. 그런데 이 무자도 또한 응용공부이니 그것도 없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게되면 「무」의 공부마저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집착함이 있기 때문에 진공을 이루지 못하니 어떻게 묘유(妙有)를 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무」라는 이름이나 글자도 「무」의 공부도 모두 없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맑고 그윽하며 항상 안정된 지경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적정(寂靜)이 극점에 달하면 또한 그 적정도 모르게 된다.

이때 심성은 별썰 티끌에 싸인 속세의 경계에서 떠난 것인데, 사욕이나 잡념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사욕과 잡념이라는 생각들이 이미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것이 비로진실한 청정이 된 것이다.

「演說」

由上章可以知道人的所得乎天的眞性是沒有形色的。然而又恐世人誤解了這個「空」字的眞意，不能瞭然，不得不把

老子所說的：「空. 無. 寂. 靜」的奧旨上加解釋。須知所說的「空」不是「頑空」。所說的「無」不是執「虛無」。所說的「寂」並不是靜坐觀空的呆板。如果能穿了「真空妙有」，才是眞靜呢。今有一般修道的人，遠離了人情，將自己父母妻子置之不顧，把五倫八德亦認爲無位，也不是勸化世人，自認己爲世外高人，還希圖超脫成仙佛，豈不知自心已執偏見，將來來不過一守尸之鬼而已，有甚麼好處呢？金剛經上說：「應無所住而生其心」，就是叫人修道不應該執形着象，方能觀見眞空呢。佛家謂：「法本不有，莫作有見。法本不有，莫作無見」。中庸說：「上天之載無聲無臭至矣」，雖言「無聲無臭」而不言「空」，就是恐怕世人誤解「空」字。並且連有無的念頭，都不當存，方是正見，才能入

於清靜. 不存有常寂之念, 方可眞實的常寂呢.

「연설」

윗 대문에서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진성(眞性)은 형색(形色)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이 이 「공(空)」자의 진의를 오해하여 확실히 모를까 거정이 되어서, 부득이

노자가 말씀하신 : 「공(空). 무(無). 적(寂). 정(靜)」의 깊숙한 바닥의 뜻에 다시 해석을 더한 것이니, 모름지기 이 「공(空)」이라는 것은 「완공(頑空)」이 아니요, 「무(無)」라는 것은 「허무(虛無)」함을 붙들고가는 것은 아니며, 「적(寂)」이라는 것도 정좌하여 공을 본다(靜坐觀空)는 딱 막혀 꼼짝 못하는 우두커니가 아니다. 결국 진공묘유(眞空妙有)를 뚫어지게 깨달았어야 비로소 진정(眞靜=참 고요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수행한다는 사람을 보면, 인정(人情)도 멀리하고 자기 부모 처자도 떼어 놓고 돌보지 아니하며, 오류와 팔덕도 쓸데없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며, 세상 사람에게 권하여 덕화시키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는 세상 밖의 높은 사람이 된 것으로 안다. 그러고도 초탈하여 선불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어찌 자기 마음이 벌써 편견(偏見)에 붙들리고 있는 줄을 모르는가? 결국 한낱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에 지나지 않을 따름인데, 그 속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온단 말인가?

금강경에 : 「응당히 집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고 하였으니 이는 곧 사람더러 수도함에 있어 형상에 집착하지 아니하여야 진공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친 말이요. 불가에서 말하기를 : 「법은 본래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며, 법은 본래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하였고, 증용에는 또 : 「상천(上天)의 하시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지극하다.» 라고 하였는데, 비록 「소리도 냄새도 없다」 고는 하여도 「공(空)」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공(空)」자를 오해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으니 이 위에 있다, 없다 하는 생각마저도 모두 없어야 바로 옳은 견해(正見)가 되어, 비로소 청정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항상 고요하다(常寂)는 마음조차 두지 말아야 상적의 경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詩曰」

至誠無息體自然 空空自如何須觀
無所空時卽是妙 有點念頭却非禪
寂無所寂不知寂 玄之又玄不言玄
自能覺悞體眞意 普施慈懷挽狂瀾

「 노래 」

1. 지성 무식 언제나 자연 뜻 받아
공공자여 환한데 또 뭣 보려나?
공한 바도 없으면 묘유 있지만
일념도 생각하면 참선이 아닐세
2. 적 무소적 하여도 적을 모르며
현지우현 알지만 말 않는다.
스스로 깨달아서 참뜻 몸받아
사랑 널리 베풀어 광란 구하세.

第 九 章

眞常應物이며 眞常得性이니 常應常靜이면 常清靜矣리라.

「원문풀이」

진실로 떳떳하여 만물에 응하며, 진실로 떳떳하여 본성을 얻으니, 항상 감응하고 항상 고요하면, 항상 청정할 것이다.

「字解」

眞常—眞常不虛, 常是不變, 卽是眞理言. 性—天之所命與人的. 人之所得於天

的叫作性.

「글자풀이」

진실로 떳떳함(진상-眞常)—진실로 항상 헛되지 아니함, 떳떳하다 함은 변하지 않음이니, 곧 진리(眞理)이다. 성(性)—하늘이 명령하여 사람에게 주신 것,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을 본성이라고 부른다.

「章解」

用那眞常不變的理來應付萬事文物，能夠眞實不虛的去作，便能得萬物的性理。不但是平時如此，卽是應於萬事，亦是事來則應，事去則靜。果能這樣的平靜，自強不息作下去，便能永長虛空無礙寂然安止的不妄動了。

「대문풀이」

그 진상 불변하는 이치를 가지고 만사 만물에 척척 응대하여, 진실하고 헛되지 않도록 해 나갈 수 있으면, 바로 만물의 성리를 깨달아 얻을 수 있으니, 다만 평시에 이렇게 할 뿐 아니라, 곧 만사에 응대하여, 또한 일이 생기면 그대로 응하고, 일이 끝나면 도로 고요하여진다. 이렇게 평정(平靜)하며, 부지런히 쉬지 않고 힘 쓸 수 있게 되면, 곧 영혼히 허공에 막힘이 없게 되며, 고요하고 편안한 데 그치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게 될 수 있다.

「演說」

上章說的是「欲旣不生，卽是眞靜」，這一章解釋，怎樣才能作到眞靜呢？觀今世人有的只能靜而不能動，或者能動而不能靜，此凡夫何足爲道呢。況且只是獨善己身，不能兼善天下。但是

老子說的眞靜，是「奧理取靜」的眞意，在自身本具有常而不變的理性。更是無爲無畏良知良能的。如果能得到明師指點，自然大德性重明。頓現眞如。中庸云：「唯天下至誠，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能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化育，則可以與天地參

矣」. 况人爲萬物之靈, 無時無地不在事中, 萬事萬物, 各具眞理. 明理則處之得當, 否則昏亂無章. 現在的人們, 只因都迷, 失體性, 不講眞理. 故此你爭我奪, 把世界擾亂個亂七八糟. 我呆史眞有點看不下去, 所以重將

老子救世的苦心說出來, 好讓大家行持. 如若能夠用那眞常的理, 來應付萬事萬物, 自然能合乎中道而已. 中庸云: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如此便沒有甚麼災星和劫煞了, 自私心妄取心慾心不會在生了. 行出事來一定是坦白的, 平靜的, 能箸樣的做下去, 不就是歸依清靜了嗎? 不但一人如此, 擴而充之, 世界衆生也都如此, 眞不難重見堯天舜日呢.

「연설」

윗 대문에서는 「욕심이 이미 생기지 아니하면 진실로 고요함이 된다」는 것을 말했다. 이 대문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진실로 고요함이 될 수 있는가를 해석하고 있다.

지금 세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능히 고요하기는 하나 능히 움직일 줄 모르는 이도 있으며, 혹은 능히 움직일 수는 있으나 능히 고요할 수 없는 이도 있는데, 이러한 범부로서 어찌 도를 할 만한 것인가? 또 더구나 체 한 몸이나 착하게 하고(獨善) 천하가 다 함께 착할(兼善天下) 수 없는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노자께서 말씀하신 진짜 고요함(眞靜)이란, 「오묘한 이치가 고요함을 취한다」는 참 뜻은 자신의 몸에 본래 갖추고 있는 떳떳하고 변치 않는 이성(理性)이다. 또 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본래부터 알고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無爲無畏良知良能)이다. 명사의 지점을 받게 되면, 자연히 큰 덕(大德)이 다시 밝아지면, 진여(眞如)의 본성이 바로 나타난다.

중용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至誠)이라야 능히 그 성리를 다할 수 있고 그 성리를 다할 수 있으면 능히 사람의 성리를 다할 수 있고, 사람의 성리를 다할 수 있으면, 능히 만물의 성리를 다할 수 있으며, 만물의 성리를 다할 수 있으면 곧 능히 천지의 화육을 도울(贊) 수 있게 되면 곧 천지에 참여하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靈長)이 되었으니 말할 것 없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만물은 모두 각각 진리를 갖추고 있다. 이치를 환히 알면 처리하는 일마다 마땅함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하여 질서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현재 사람들은 모두 미혹하여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며, 서로 싸우고

뺏고하여 세계가 요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나

바보 늙은이가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노자가 세상을 구제하려는 고심을 살피어 이야기하게 된 것이니, 다 함께 그대로 잘 지켜나가기 바란다. 만약 그 참되고 떳떳한(眞常) 이치를 만사 만물에 잘 응용하며, 자연스럽게 중도(中道)에 합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증용에 : 「증화(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자리잡으며, 만물이 자랄 것이다.」 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재앙의 별이나 겁살도 없게 되고, 자사심(自私心)과, 망취심(忘取心)과 욕심이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허심탄회(坦白)하고 평정(平靜)할 것이다. 언제나 이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바로 이것이 청정에 귀의한 것이 아닌가? 다만 한 사람이 이러할 뿐아니라 확충하면 세계 증생들도 모두 이렇게 될 터이니, 요천순일(堯天舜日)의 대동세계를 다시 보기도 힘드는 일이 아니다.

「詩曰」

清靜無爲無不爲 有感悉通理無虧
誰可判分清濁理 孰能循守動靜規
心神洒陀觀自在 智慧光明了是非
奧理精華幾個悟 學禪空到性如灰

「노래」

1. 청정 무위하여도 안함이 없고

느낌 있어 행하면 완전하련만

누가 능히 청탁 이치 갈라낼지며

누가 동정 법칙을 지킬 것인가?

2. 심신이 자유로와 자재 환하고

지혜 밝아 시비도 따지지 않으니

오묘한 이치 깨친이 몇이나 되는가?

선(禪) 배우는 사람들 헛수고 많네

第 十 章

如此清靜하면 漸入眞道요 旣入眞道에 名爲得道라 雖名得道나 實無所得이요 爲化衆生이라야 名爲得道니 能悟之者는 可傳聖道니라.

「원문풀이」

이와같이 청정하면 점점 진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미 진도에 들어가면 득도라고 이른다. 비록 득도라고 이름하여도 실상은 얻은 것이 없고 증생을 교화하여야만 득도라고 이른다. 능히 깨달은 이는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다.

「字解」

漸—是由淺入深有次第的意思. 化—是教化. 衆生—梵語爲「薩埵」, 新釋爲「有情」, 舊釋爲「衆生」. 衆生二字有三義. (一)衆人所共生之意, (二)衆多之法假和合而生, 故名衆生, (三)經衆多之生死, 亦名衆生, 聖道—大而化之謂之聖. 必由之路謂道. 簡而言之, 卽聖人的心法.

「글자풀이」

점점(漸)—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차례가 있음. 화한다(化)—교화한다. 증생(衆生)—범어(梵語)로는 살타(薩埵) 새 해석으로는 유정(有情)이며, 옛 해석으로는 증생(衆生)이라. 증생 두글자가 세가지 뜻이 있으니. (一)은, 함께 살고 있는 여러 사람. (二)는, 모든 여러 범이 가짜로 화합하여 생한다 하여 증생이라고 한다. (三)은, 모든 여러 생사를 거친다 하여 증생이라고 한다. 성도(聖道)—크게 교화함을 성(聖)이라고 하며, 반드시 할 길을 도(道)라고 하니, 간단히 말하면 성인의 심법(心法)이다.

「章解」

既然是達到如此的清靜，就可以漸次步入真道了。既然得入真道的門徑，便可以說是得着真道了。雖如此說，確乎毫無所得，還必須普化有情同登彼岸，方可稱為得道的。能悟透了這個道理的人，才可以傳佈聖人的心法呢。

「대문풀이」

이미 이러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하면, 진도에 차차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진도의 문으로 길잡아 들어가면, 바로 진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꼭 얻었다는 것은 털끝만치도 없고, 유정의 증생을 널리 교화하여 극락인 저 언덕으로 함께 오르게 하여야 비로소 득도하였다고 일컬을 수 있다. 능히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성인의 심법을 전포할 수 있다.

「演說」

上章所說의 清靜之道，意義非常得奧妙。惟恐少人參悟不知其中的真意。真是叫

老子嘆惜不止呢。又怕後人以爲歸依了清靜之后，便自以爲得道了。所以又有這一章의 解釋歸依清靜，雖說是得了道了，但不培德不能消冤，不行功不能了愿，還是不能了劫生死。所以說起來還是毫無所得，也不過只落個獨善己身的小乘徒而已。於世人可有甚麼好處呢？必須時存濟世爲懷慈悲爲本의 念頭，普渡衆生，使人人脫出輪廻之苦，地獄之災，才合乎修道人的本旨呢。佛云：「衆生不成佛吾誓不成佛」。故講經說法，普渡群迷。孔子週遊列國杏壇設教，完全是讓人明白明德新民，己立立人，己達達人的真意。以及耶穌의 博愛替衆生贖罪，並說「世上의 人們，有一人의 不明，就是我的德不明」。這些事都是捨己從人。故道德經上說：「聖人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又云：「後其身而身先，外其身而身存」。聖人所留下의 一言一行，都是修道模範。中庸云：「動而世爲天下道，行而世爲天下法，言而世爲天下則」，果能效法去作，那能道不成天上名留人間呢？

現在到了三期末運의 時候，天道應運普渡，明師繼往開來，溫故知新，祖述堯舜，崇尊孔孟，重闡一貫之真機，恩施三曹，「真是百世以俟聖人」의 話却言符其實了。舊本所註의 第一章「三期普渡，道須人傳」而今正當明師承領天命，挽

化九六原靈，倘能夠得遇明師不負此一生呢.

「연설」

윗 대문에서 말한 청정의 도는 뜻이 매우 깊고 오묘하여 오직 참오하는 사람이 적다. 그 가운데의 진리의 즐거리를 알지 못하는 이가 있을까 걱정된다. 진실로 이는,

노자가 탄식하고 아깝게 여겨 마지 않는 것이다. 또 후세 사람이 청정에 귀의했다고 하여 그게 바로 득도한 것이라고 혼자 짐작해버릴까 무섭다. 그래서 또 이 한 대문의 해석이 있게 된 것이다.

청정에 귀의하면 비록 도를 얻었다고 하기는 하나, 덕을 쌓지 않으며 원일이 없어지지 않고, 공을 행하지 않으며 원력(願)을 다 이루지 못하여, 겁과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는 말을 내놓게 된 것이다. 또한 내몸 하나 홀로 착했을 뿐, 소승(小乘)의 무리로 떨어졌을 뿐이니, 세상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언제나 세상 구제할 것을 마음에 두고 자비를 근본으로 삼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널리 건지며, 사람마다 누구나 윤회의 괴로움과 지옥의 재난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하는 이의 근본 취지(本旨)에 맞게 되는 것이다.

부처께서는, 「중생이 성불하지 못하면 나도 성불하지 않기로 맹세한다.」 고 하여 경문을 강설하며, 법을 해설하면서, 여러 해매는 이들을 널리 건지시었고, 공자께서는 두루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행단의 가르침을 베풀어(杏壇設教),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명덕 신민과, 내가 서면 남도 서게함(己立立人)과 내가 통달하면 남도 달통하게 하는(己達達人) 진의를 딱딱히 깨닫게 하셨다. 예수에 이르러서는, 박애로 중생을 대신하여 속죄케 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라도 밝지 못한 이가 있으면, 그것은 나의 덕이 밝지 못함이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남을 좇아가는 것(捨己從人)이 되므로, 도덕경에는, 「성인은 함이 없는 일에 처하며 말하지 않는 교를 행하여 백성을 교화한다.」 고 하셨다. 또 「그 몸을 뒤로하고 앞에 서지 않으며 남보다 먼저 서며, 그 몸을 밖으로 하고 가뻐이 여기며 그 몸이 있다.」 고도 하셨으니, 성인들의 남겨 주신 일언일행이 모두 수도의 모범이 된다. 중용에 이르기를, 「동하면 천하도(天下道)가 되며, 행하면 천하법(天下法)이 되며, 말

하면 천하칙(天下則)이 된다。」고 하였으니, 과연 법을 본받아서 실행할 수 있으면, 어찌 도가 천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이름이 인간에 남지 아닐 것인가? 현재 삼기 말운이 되어, 천도가 운에 응하여 보도하게 되고, 명사께서 지난 일을 이어받아 올 일을 열어 주시며, 옛것을 익히어 새것을 알게 하시며, 요순의 일을 이어 지키고 베풀어서, 공. 맹을 높이어 받들고, 일관의 진기(眞機)를 거듭 천명하여, 은혜를 삼조에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백세에 성인을 기다리어.....」 라는 말과 꼭 들어맞게 되었다. 구본(舊本)에 주석하여 놓은 이 대문의, 「삼기에 보도하되 도는 반드시 사람이라야 전한다。」고 한 것이 지금 마치 명사가 천명을 받들어 九六원령들을 건져 교화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만약 명사를 만나게 되면 이 일생을 저저리 지 않을 것이다.

「詩曰」

定靜工夫大自然 何須爐中煉乾元
 原人多爲丹經悞 迷子未能聖人參
 苦海沈淪何日脫 樂境逍遙幾時還
 但願得道能佈道 不負恩師闡眞傳

「노래」

1. 대자연 그대로가 정정 공부라
 어찌 꼭 노중에서 건원 단련해
 원인이 잘 모르며 단경에 속고
 성인이 알아낸 것 미자를 몰라.
2. 허덕이는 고해는 언제 벗으며
 극락에서 소요는 언제 해볼까
 원하노니 득도하고 포도하여서
 진전밝힌 은사를 저버리지 않으리.

第十一章

太上老君曰, 上士는 無爭이요 下士는 好爭하며 上德은 不德이요 下德은 執德이니 執着之者는 不明道德이니라.

「원문풀이」

태상노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사는 다툼이 없고 하사는 다투기를 좋아하며, 상덕은 덕삼지 아니하고 하덕은 덕에 집착하느니, 집착하는 이는 도덕을 똑똑히 모른다.

「字解」

太上一是最上之稱, 尊敬

老子的意思. 上士—是德學兼優, 而且深明道理的人. 下士—是德薄學淺, 而且執着的人. 德—是有功於世, 有恩於人者謂之德. 也就是率性而行, 發於事的叫着德.

「글자풀이」

태상(太上)—가장 높은 존칭.

노자를 존경하여 쓴 말. 상사(上士)—덕과 학이 겸하여 우수하고 도리를 깊고 밝게 깨달은 이. 하사(下士)—덕학이 천박하고 집착하는 사람. 덕(德)—세상에 공이 있으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덕이라고 하며, 또 본성대로 좇아 행하며 그것을 일에 나타내는 것도 덕이라 한다.

「章解」

老子說：上等賢人, 因他深明大義的, 故沒有什麼爭貪. 下等的愚人, 固執己見, 不察情理, 總是好起爭貪. 上等有德的人, 行了有功於世有恩於人的事, 還不以為是德. 下等無德的人, 有心積德. 作一點有德的, 便要自持有德了. 因他

是不明道德的真義呢.

「대문풀이」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등 현인은 대의를 깊고 밝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 쟁탐(爭貪)이 없으나, 하등 우인(愚人)은 형편과 이치를 살피지 않고 모두 쟁탐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상등 덕이 있는 이는 세상에 공을 세우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행하고도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나, 하등 덕이 없는 사람은 덕을 쌓을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일점의 덕있는 일을 하고도 스스로 덕이 있노라고 생각하니, 이는 도덕의 진의를 잘 알지 못한 때문이다.

「演說」

這章書是

老子特別關心修道的人不要起貪爭的心，不要執德的意思。既然說是「雖名得道，實無所得」，這顯而易見的了。真道是無形無象無爲而無不爲的。明白著個道理，曉得萬象皆空。到時終歸於盡。渺然一生，空自後悔，能夠尋出脫的正路，方不致永受輪迴的苦。既然悟透人生是變幻，還有什麼可爭的呢？況且富貴貧賤，皆是命中造定。故孔子云：「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但是一般愚昧無知的，盡作些行險僥倖的事，貪求聲色，殊不知終日營營刻薄成家。一旦天災病孽，仍苦不可解。常說：「人不與命爭」就是這個意思。明白天理的人，處處以濟人利物爲本職，並不自彰其德。可是德已然就有了。朱子曾言：「善欲人見……不是真善」。況且有德的人，是爲而不恃，功成不居，永久是兢兢業業戒慎恐懼的作下去。他的德是永遠不會消失的。但是有等人，也知修德是件好事，到處行些有爲有作的善事，只恐旁人不知，埋沒了他的美譽，處處誇張，不料想如此一表反而不美了。道德經云：「自伐者無功：自見者不明：自是者不彰：自矜者不長」。這樣的人，是不明道德的真義。真是可惜呢！

嗚呼！近代人心不古，世態炎涼，連有爲之德都不作。只知你爭我奪，惟利是圖，以致世揭壞到這個地步呢？咳！孟子云：「上下交爭利，而國危矣」的話，真是不錯呢！

「연설」

이 대문은

노자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서, 수도하는 사람은 쟁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말한 「비록 득도라고 이름하여도, 실상은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이 쉽게 나타나 보인다. 진도는 형도 상도 없으며 함이 없으면서 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이 도리를 밝게 깨달으면 일만 형상이 다 공한 것을 환히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끝에는 다 없어질 것이며,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한 평생을 공연히 스스로 후회하게 되는데, 능히 빠져 나갈 바른 길(正路)을 찾지만 하면 이제부터는 영원히 윤회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미 인생은 무상(無常)한 것이라고 똑똑히 깨달았으니 또 무슨 다들만한 일이 있으랴? 하물며 부귀 빈천은 모두 운명 가운데에서 작정된 것이니 더 말해 무엇하리! 그러므로 공자는 : 「부를 가히 구할 수 있다면 비록 말뚝이(執鞭之士=운전사)노릇이라도 내가 하겠거니와, 만일 가히 구할 수 없는 것이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쫓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우매하고도 무지한 일반 사람들은 끝내 위험한 일을 행하여 요행이 있기를 바라며, 소리와 빛을 탐구하고 특히 종일토록 쏘다니며 각박하게 하여 성가(成家)할 것만 생각하다가, 일단 처녀재나 병열이 닥쳐오면 괴로움을 끝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항상 말하기를 : 「사람은 명과 다투지 못한다.」 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뜻이다.

천리(天理)를 잘 아는 사람은 곳곳에서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써주는 것을 본직으로 삼되, 결코 스스로 그 덕을 나타내지 아니하여도 덕은 이미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자는 일찍이 「착함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면.....진실한 착함이 아니라.」 고 말씀한 일이 있다. 더구나 덕있는 사람은 만물을 생육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만물을 성취시키는 공을 이루고도 그 공세운 자리에 있지 않으며 영구히 무서워서 조심하고 계신(戒愼) 공구(恐懼)해 나가고 있다. 그래도 그의 덕은 영원히 없어질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도 덕을 닦음이 좋은 일인 줄은 알고, 도처에서 유위 유작한 착한 일들을 꾸며하고는 남이 알지 못할까, 또는 자기의 훌륭한 명예가 나타나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릴까 걱정하고, 곳곳에서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고만 있지만은 이러한 인물은 도리어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이는 공이 없으며,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이는 밝지 못하며,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는 환히 나타나지 못하며, 자기 능력을 뽐내는 이는 자라지 않는다.」 고 하였다. 이런 사람은 도덕의 참 뜻을 알지 못함이라 참으로 애석하구나!

아! 그런데 인심은 각박하여 옛날과 같지 않고, 세태와 인정은 자꾸 변하여서,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덕마저도 도무지 행하지 않고, 다만 서로 뺏고 싸우며, 자기욕심 차릴 줄만 알 뿐이다. 세계가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다. 허! 맹자의 「상하가 서로 자기욕심을 다투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는 말씀이 꼭 들어 맞았다.

「詩曰」

誰將塵緣盡悟空 惹動風塵苦無窮
聲色貨物嫌少得 富貴功名總多爭
執形着象失情理 背覺合塵昧性明
上德普化超宇外 堪憐愚夫轉飄零

「노래」

1. 누가 속세 벗어나 공을 알건고

만약 풍진이 동하면 괴로움 한 없네
성색 재물 남보다 많이 얻고자
부귀 공명 탐내어 모두 싸우네.

2. 형상에 집착하면 정리를 잃고

속진을 좋아하면 본성 어두워
상덕은 하늘 끝 널리 교화해
쉴쉴히 지는 우부 불쌍도 하다.

第十二章

衆生이 不得眞道者는 爲有妄心이니라.

「원문풀이」

증생이 진도를 얻지 못함은 망심이 있기 때문이다.

「字解」

妄心—是虛妄不實的人心. 也是妄分別的心.

「글자풀이」

망심(妄心)—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한 인심, 즉 망령되이 분별하는 마음.

「章解」

現今眞機普渡, 道降庶民, 凡是善男信女皆得道的機緣. 然而衆生仍是認假不認真. 惟其原因惟有妄心所致. 因妄心一動, 道心難現, 離道很遠. 所以不能得眞道呢.

「대문풀이」

현재 진기가 널리 보도하게 되어 도가 서민에게 내리게 되었으며 모든 선남선녀가 다 득도할 기연(機緣)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증생이 끝내 가짜만 알아보고 진짜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오직 망심이 있는 때문이다. 망심이 한번 움직이기 때문에 도심이 나타나지 못하며 도에서 멀리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진도를 얻지 못하게 된다.

「演說」

這一章是承上章說的. 前章說的無非 「無爲」 「有爲」의 分別. 如果存有爲之心, 不但不明道德, 還不能得眞道呢. 再看現在世界的人們, 那一個不是鉤心鬥

角利益薰心，苦此雖然科學倡明，物質進化，衣食住行不爲不便，但是撫心自問，不但不能享受，反到受了罪啦。

交通便利，戰場擴大，故此造成空前未有的大劫煞，普天之下，何處是安樂鄉呢？細想劫煞的造成，還不是因爲人心不古嗎？楞嚴經云：「心平大地皆平」。佛云：「修橋補路，不如先平心地」，佛祖的立言真是不假。故而天道應運降世挽此浩劫，重整堯天，化人人回心向善，願個個脫出劫淵，大千世界，一道同風，快樂可想而知。所以

呆史，不惜唇舌，苦勸衆生。希望大千佛子，共脫苦海，同登道岸。倘若妄心不除，難得真道，永墜沈淪，那時後悔也就來不及了。

「연설」

이 대문은 윗 대문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윗 대문은 「무위」와 「유위」의 분별을 말하지 아니함이 없다. 만일 유위의 마음을 가지면, 도덕에 밝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진도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현재의 세계 사람들을 보면, 어찌 사람이라도 온갖 꾀를 다 부리며, 이익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은 진화하고, 의식주는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졌지만, 마음을 가다듬어 스스로에 물어보니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죄를 받은 것이 되었다.

교통이 편리하니 전쟁터가 확대되고, 그래서 전에 없던 큰 겁살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세상 천지에 어는 곳이 안락향이란 말인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 겁살이 만들어진 것은 역시 인심이 변했기 때문이 아닌가? 능엄경에 「마음이 편안하면 천하가 다 평안하다。」 하였고, 부처님은 「다리 고치고 길 닦음이 먼저 마음 바닥을 평안하게 고르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고 하였으니,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도가 응운하여 세상에 내려와서 이 호겁을 구원하고, 요임금 나라와 같은 태평세계를 다시 나타내어 사람마다 마음을 찾아 착한데로 향하게 한다. 원컨대 사람마다 겁에서 벗어나, 대천세계가 한가지 도로써 함께 즐기며 살도록 하라. 그때의 쾌락함이 어떠할 것인가는 가히 짐작하여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보 늙은이가 혀가 닳도록 아낌 없이 중생에게 자꾸 권하는 것은 대천세계의 불자들이 함께 고해를 벗어나서 모두 함께 도의 언덕(극락)으로 오르

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망심을 버리지 못하면 진도를 얻지 못하며 영영 지옥에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할 것이니 그때에 가서 후회하여도 소용없다.

「詩曰」

衆生浪浪轉循環 妄心一動惹牽纏
切切行功結後果 速速積德了前冤
此時不將眞道傳 何日方能古鄉還
囑盡衷言當覺路 睜眼卽見菩提船

「노래」

1. 증생은 출렁출렁 밀려 구르며
망심에 흔들흔들 꿈짝도 못해
아무쫌록 행공하여 후과를 맺고
어서 빨리 덕을 쌓아 원채 다 갚소.
2. 이때에 진도를 전하지 않고
언제나 고향 길을 돌아갈거나
진실로 깨닫는 길 가리키노니
눈 바로 뜨고 보라 이게 보리선.

第十三章

既有妄心하면 卽驚其神이요 旣驚其神하면 卽着萬物이요 旣着萬物하면 卽生貪求
요 旣生貪求하면 卽是煩惱니라.

「원문풀이」

망심 한번 가지면 그 식신이 놀라고, 그 식신이 놀라면 만물에 집착하며, 만물에 한번 집착하면 바로 탐구가 생기며, 탐구가 한번 생기는 것이 바로 번뇌니라.

「字解」

驚—突然害怕叫驚慌. 言戒慎的意思. 着—是着受的義士. 貪—是染着六慾之境而不離之意和「愛」字名雖不同而理是一樣的. 求—是索取的意思. 煩惱—是一切貪. 嗔. 恚. 愚. 痴. 等能使煩心惱身的叫煩惱亦是個個不樂的意思.

「글자풀이」

놀라다(驚)—갑자기 두려워 겁내는 것. 경계하고 삼가는 뜻. 집착하다(着)—붙들고 있다. 탐내다(貪)—육욕(六慾)에 붙들고 있으면서 떠나지 못하는 뜻이며, 사랑애(愛)자와 이름은 다르지만 이치는 똑같다. 구하다(求)—찾아 취하다. 번뇌(煩惱)—일체의 탐. 진. 애(恚). 우(愚). 치(痴)등이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묶어대며, 또 고민하여 모두가 즐겁지 못하다는 뜻.

「章解」

上章說的是衆生不能得悟眞道，就是因爲貪妄之心，就要驚動那喜動而不喜靜的「識神」. 識神被驚，心意外馳，便要着於萬物了. 既然接觸了萬物，就要生出不想離開，而要索取的心. 但是天下的事，那能參與所願呢？如果求之不得，立刻就是無窮的煩惱.

「대문풀이」

윗 장에서도 말했지만 증생이 진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은, 탐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경거망동하기를 좋아하면 고요한 식신은 좋아하지 않는다. 식신이 놀라면 마음과 뜻은 밖으로 내달아서 바로 만물에 집착하고, 이

미 만물에 접촉하게 되면, 여간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서 자꾸 찾고 취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나 천하의 일이 어찌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구해서 얻지 못하면 당장에 무궁한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演說」

苦海衆生不能得其眞道，是爲了三心不掃，四相不飛的原故。因人寄紅塵，總是紛紛擾擾，朝夕營求，不得歇心，故此妄心一動，則神隨意遷，追遂萬物而戀戀不捨，甚致廢寢妄食，自甘其願。這樣一來身心不得養。道德經云：「不見可欲，使民心不亂」。佛云：「寂然不動」。都是讓人不動心的意思。假若苦苦貪求，即便一時僥倖求得到手，還不是家大業大操心嗎？諺云：「身旁無愛物，心中煩惱稀」。何況說是促促一生，不知何日歸去。故有人生如蜉蝣的話呢！試看歷代的佛祖聖賢，留芳千古雖死猶生，足可以作後人的標杆榜樣。另有一般不知禮義，妄貪妄取苟安偷生的人，死後遺臭萬年。噫！同是一生，只因所爲事業不同，故此有天淵之別了。願世人熟思此意，方不致悞了自己一生的事業。

諺云：「兩利相形，取其重。兩害相形，擇其輕」。

古文云：「天地爲萬物逆旅，光陰爲百代過客」。

寒來暑往日月穿梭，古今一件一件事情，都被光陰催促過去了。這人生數十年的時候，那還有功夫招惹煩惱呢？俗語云：「知足者常樂。能忍者自安」，如不知足妄生貪求，一生總是煩惱。羅狀元作的詩上說：「到無求處便無憂」的句子真是不錯呢。

「연설」

고해 증생이 그 진도를 얻지 못함은, 삼심(三心)이 싹 쓸어지지 않았으며, 사상(四相)이 날려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흥진에 살면서 모두 얽히고 설켜어 요한하며, 조석으로 경영하며 탐구하여 마음이 편히 쉴 수 없다. 그러므로 망심이 한번 움직이면, 원신이 뜻대로 따라다니면서, 만물을 쫓아 연연히 그리워하며 놓아 버릴 줄을 모르고, 잠자기와 밥먹기를 잊어 버리며, 그 소원만 이루면 만족하다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없다.

도덕경에 「하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여야 민심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고 한 것과 부처님의 「자연히 움직이지 않는다.」 는 말씀이 모두 사람에게 마음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다. 만약 일심전념으로 탐구만 힘쓰다가, 한때 요행히도 내손에 얻어 질 수도 있으나, 가업이 커져서 더욱 마음을 쓰게 되지 않겠는가? 속언에 「몸 곁에 애착하는 물건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번뇌가 적다.」 고 하였는데, 하물며 언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한 평생을 다급하게 재촉하는 이야기야 말해서 무엇하랴?

그러므로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역대의 불조(佛祖)와 성현(聖賢)들을 보라. 천고에 꽃다운 이름을 남기고 죽었어도 오히려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반 예의(禮義)를 알지 못하고 망탐 망취하며 구차하게 편안히 생을 흠치고 살다가 죽은 후엔 만년동안이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가 있구나! 아아! 슬프다! 다 같은 한 평생이건만 다만 위하는 사업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천당과 지옥의 차별이 생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깊이 생각하여 자기 일생의 사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속언에 「다가지 이로움이 함께 나타나거든, 그 무거운 쪽을 취하고, 두가지 해로움이 함께 나타나거든, 그 가벼운 쪽을 취하라.」 고 하셨다. 옛글에 「천지는 만물의 나그네 길이요, 시간은 백세의过客이라.」 고 하였으니 계절이 순환하고, 세월이 쉬지 않고 흐르는 동안 고금의 시건들이 모두 시간에게 재촉당해 지나가 버린다. 이 인생 수십년밖에 안되는 동안, 번뇌를 일으킬만한 시간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속언에 「족함을 아는 이는 항상 즐겁고, 능히 참을 수 있는 이는 스스로 편안하다.」 고 하였는데 만일 족함을 모르고 망녕되이 탐구하는 생각이 나면 한평생이 온통 번뇌뿐이다. 나장원(羅狀元)이 지은 시에 「구할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곧 근심이 없다.」 고 한 구절은 참 옳다.

「詩曰」

驚動心神任馳遊 着於萬物慾貪求
 慾念未遂心轉惱 貪求不得意生愁
 聲色叢叢速回悟 孽海濤濤勿逐流
 了盡俗緣方成道 此時不修幾時修

「노래」

1. 심신이 경동하여 마구 달리어
만물에 집착하여 욕심 탐구해
욕심대로 안되면 번뇌 생기며
탐구하여 못얻으면 근심 생기네.
2. 성색을 어서 벗고 깨달음 얻어
일해의 파도 속에 빠지지 말고
속세 연분 떠나면 성도하리니
어때에 닦지 않고 언제 닦으리.

第十四章

煩惱妄想이 憂苦身心하며 便遭濁辱하여 流浪生死하며 常沉苦海하여 永失眞道하리라.

「원문풀이」

번뇌와 망상이 마음을 성가시고 괴롭게 하니, 바로 탁욕을 만나 생사 속에 유랑하며, 항상 고해에 빠져서 영원히 진도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字解」

憂苦—是憂愁苦惱的意思. 濁辱—是污濁恥辱的意思. 流浪—是飄泊不定的意思. 苦海—是比喻苦境的意思, 指紅塵世界有生死轉變而言.

「글자풀이」

우고(憂苦)—근심 걱정 성가시고 괴로움. 탁욕(濁辱)—더럽고 흐리며 부끄럽고 욕됨. 유랑(流浪)—등등 떠서 나부끼며 일정하지 못한 것. 고힘(苦海)—괴로운 경지에 비유한 것, 흥진 세계의 생사와 전변이 있음을 가리키어 말함.

「章解」

對於萬事萬物，如有求不得的時候，便會生出煩惱苦悶的事情來，由煩惱怒中，便要想人非非。妄心一動身心添了無窮的憂愁和苦惱，便要受到許多的污濁恥辱，惹得飄泊下流，轉變生死，永久沈淪在無變的苦惱境遇中，永遠的迷失了眞常不朽的道呢。

「대문풀이」

만사 만물에 대하여, 만일 구하다가 얻지 못하는 때는, 곧 번뇌와 고민하는 일이 생기며, 번민과 성난 근심 때문에, 남을 그르다고 생각하게 된다. 망심이 한번 움직이며 몸과 마음에 무수한 우수와 고뇌가 덮쳐서, 허다한 오락과 치욕을 당하게 된다. 하천한 곳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생과 사를 되풀이 하며, 영원히 무한한 고뇌속에 빠져 버린다. 영원히 진실하고 떳떳하고 썩지 않는(眞常不朽) 도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演說」

前章的意思就讓人不妄求。本來天地間的萬物，是賜於衆生享受的。因人的福祿不一，所以享受的多寡亦有所不同。更有一班妄作妄爲的輩，胡遭亂鬧損陰功，敗德行經過輪迴的轉變，便分出子壽夭。窮通。富貴。貧賤。爲富貴的人，不知惜福，嬌傲奢華。貧賤的人，不知認命，不能固窮，因此就俗事紛紛，擾亂社會不得一刻的安寧。事情雖屬複雜，但是不外乎「得失」二字。得意人便有無限的欣慰。失意人便有無窮煩惱。甚麼生死別離呀！自殺呀！都是因此而發生出來。羅狀元詩云：「得失榮枯本由天，用盡機關枉徒然」的意思。很是深遠。不過俗人迷毒太深，誰還認這個頭呢？日往月來，積罪深厚，離得超脫之路 永久沈淪在無變的苦境中。吾

呆臯身荷代天宣化之職，不忍衆生，久遠沈醉，重將

老子濟世的婆心訴說出來，以警醒迷頑者的痴夢。更希望四海同胞，洗心滌慮，

休念一切塵勞. 諺云 : 「天下本無事, 庸人自擾之」, 即便俗事羈身, 亦當用妙智慧照一切. 佛云 : 「脫出煩惱卽菩提」, 卽是救苦的金丹. 果然能依此修行, 自然不會遭受到污濁的恥辱. 亦不會流浪生死, 常沈苦海, 更不會迷失真道. 事實有這樣偉大的效驗. 但是必須知行合一, 才能得到如此好處呢.

「연설」

앞 대문의 뜻은 사람에게 망녕되이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본래 천지간의 만물은 중생들이 받아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나, 사람의 타고난 복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분량도 또한 많고 적음이 있어 같지 않다. 그런데 한편에 망녕되이 끌어대는 무리가 함부로 덤벼 마구 떠들어서 음공(陰功)을 패하여 윤회의 전변함을 경과하면서, 수(壽). 요(夭). 궁(窮). 통(通). 부귀. 빈천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부귀한 사람은 복을 아낄 줄을 몰라 교오(嬌傲)하고 사치한다. 빈천한 사람은 운명을 알지 못해 빈궁을 그대로 받을 수 없으니, 이렇게 세속 일이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사회를 요란스럽게 하여 한 때도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은 비록 복잡하지만 결국 득실(得失) 두 글자에 지나지 아니한다. 득의한 사람은 곧 무한한 기쁨과 위안을 가지며, 실의한 사람은 곧 무궁한 번뇌를 가지게 되어, 무슨 생사 이별이네! 자살이네! 하는 일들이 모두 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장원(羅狀元)의 시에 「득실과 영고(榮枯)는 본래 하늘에 매였으니, 기관(機關)을 있는대로 다써도 소용 없다.」 고 한 뜻이 딱 깊은 데가 있다. 그런데 세속 사람들이 아주 깊이 중독되어 헤매고 있으니, 그래도 누가 이 글의 뜻을 인정할 것인가? 날이 가고 달이 오고 하는 동안에, 죄지음이 깊고 두터우니, 초탈하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영구히 무변한 고경에 빠져 헤맬 뿐이지!

나

바보 늙은이가 대천선화(代天宣化)하는 직책을 짊어지고, 중생이 오래도록 고해에 빠져 취하여 있음을 차마 볼 수 없다. 다시

노자가 제세(濟世)하시려는 노파심을 가지고 해설하여서, 미완(迷頑)한 자의 어리석은 꿈을 일깨워 경계하는 바이다. 거듭 바라건대, 사해 동포는 마음을 씻고 생각을 닦아, 일체의 티끌 세상의 수고로운 마음을 갖지 말라. 속언에 「천하에는 본래 아무일도 없는데, 범속한 사람이 스스로 흔들더라.」 고 하였다. 이것이 곧 세속일에 몸이 묶인다는 것이요. 또한 마땅히

묘지혜(妙智慧)로써 일체를 비추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 「번뇌를 벗어나니 바로 보리(菩提)라.」 고 하심이, 곧 괴로움을 구제하는 금단(金丹=성도하는 묘약)이다.

과연 이대로 수행할 수 있으면, 자연히 더럽고 흐린 치욕을 만나지 않을 것이요, 또 생사 속에 유랑한다든가, 항상 고해에 빠진다는 일은 없을 것이며, 더구나 진도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위대한 효험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지행이 합일(知行合一) 하여야, 이와 같이 좋은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

「詩曰」

煩惱妄想致傷懷 慾蔽層層昧靈台
常沉苦海隨波去 永失真道着塵埋
誠意堅決休耽忑 信心守定勿徘徊
勿謂行道受魔難 功成自得見如來

※下+心=마음 끌어오를 탄 忑=마음헛될특※

「노래」

1. 번뇌 망상은 가슴 상하고

욕심은 몇겹으로 영대 가리며
고해의 물결 따라 정처도 없이
진도 잃고 사바에 묻혀 버리네.

2. 굳은 정성 끝까지 꼭 잡아쥐고

신념으로 정 지켜 헤매지 마라
진실로 행도하면 마난도 받지 않고
공 이루어 자득(自得)하니 여래를 보리라.

第十五章

眞常之道는 悟者自得이니 得悟道者는 常淸靜矣니라.

「원문풀이」

진도의 도는 깨달은 이가 스스로 얻으니,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이는 항상 청정하니라.

「章解」

眞實不虛, 常久不變的聖道, 能夠有悟性的人, 自然會得到眞意. 得能悟透眞道理的人, 便能永久歸依淸靜, 不生不死了.

「대문풀이」

진실하여 헛되지 아니하며, 언제나 오래도록 변함 없는 성인의 도(聖道)는, 본성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자연 그 진의의 경지를 알게 된다. 참 도리를 투철히 깨달은 이는, 영구히 청정에 귀의할 수 있으며, 불생불사(不生不死)하게 된다.

「演說」

上障說到：「常沈苦海永失眞道」，

老子惟恐苦海的衆生，自暴自棄，自然不能修持，以耽耽悞了自己偉大的事業，故此

老子又說：「眞常之道，悟者自得。得悟道者。常淸靜矣」。這章的「悟」字很有意思，當知六助慧能本不識文字，然而悟性的工夫，超乎世外無上妙道。頓然悟穿，承證聖業。故有肉身菩薩的稱。今之苦海衆生，苟能眞心悟道，頓生覺性，

照穿塵緣，辨明眞假，堅定信心，自然得到聖道的眞滋味。所以說別人千言萬語，不如自己的覺悟。人所不能醒悟的原因，是着於萬物，而生出來的許多障礙及牽纏，當知紅塵非家鄉，肉身非吾體。石火電光，轉瞬卽化，一團眞性無處寄託，空自漂泊塵寰，流量生死，隨波逐流，愈趨愈下，不但不有。

上帝的盼望，與仙佛濟世的苦心，而且是泯滅了自己的根基緣份，耽悞自己的九玄七祖。當今天開普渡之時，確是萬載難逢的好機會，若輕輕錯過，豈不可惜？

當知「日月逝矣！歲不吾與」，佳期不多，絕不等候，細心參悟。方知俺

呆叟一片濟世的苦衷。眞是不容易呢。

「연설」

윗장에서 「항상 고해에 빠져 영영 진도를 잃어버렸다。」고 하셨고, 노자는 고해의 증생들이 자포자기하여 자연히 다투아 지니지(修持) 못하여 자기의 위대한 사업을 그르쳐 버렸다. 또 「진상의 도는 깨달은 이가 스스로 얻으니,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이는 항상 청정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대문의 「깨달을 오(悟)」자는 뜻이 퍽 깊으니, 육조혜능(慧能)은 본래 글자를 몰랐자만, 오성(悟性)의 공부는 세상에서 뛰어나 무상의 묘도(無上妙道)를 갑자기 환하게 깨달아 성인의 거룩한 업(聖業)을 이어 받아 증거하였기 때문에 육신보살(肉身菩薩)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의 고해 증생이 진정 능히 진심으로 도를 깨달아 돈연히 각성(覺醒)이 생기어 속세의 인연을 비추어 끊어서 진과 가를 판단하여 밝히고, 신심(信心)을 굳게 정하여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면 자연히 성도의 참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천언만어(千言萬語)가 자기의 각오(覺悟)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만물에 집착하여 허다한 장애에 끌리고 얽매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 홍진(紅塵)세계가 나의 고향이 아니요, 육신(肉身)이 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두가 전광석화(電光石火)로 허망한 것이요, 눈 깜짝하는 동안에 변하고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한 덩어리의 진성(眞性)은 기탁(寄託)할 곳이 없어 공연히 스스로 속진에 등등떠서 생사의 물결에 밀리어 정처없이 흘러 내려 갈수록 더욱

어둠속으로 들어간다. 다만

상제의 바라심과 선불의 세상 구제하려는 고심을 알지 못할 뿐아니라 그 위에 자기의 근기 연분을 민멸(泯滅)하여 자기의 구현칠조(九玄七祖)까지 그르치게 되어버렸다. 지금 하늘이 보도하는 때를 당하였는데, 이는 만고에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로써 만약 경솔히 놓쳐버린다면 어찌 아깝지 않을 까?

「세월은 가고 해와 달은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때가 길지 않으며, 기다려 주지도 않으니, 자세히 살피고 참오(參悟)하라. 그래야만 나

바보 늙은이의 세상 구제하려는 고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

「詩曰」

悟性窮源體眞空 常依清靜妙道應
感應通達一心印 智慧照遍萬卷經
能脫盡俗無人我 得證涅槃了生死
克己成人兼天下 發大愿心渡蘊靈

「노래」

1. 본성 알고 근원 찾아 진공 몸받고

언제나 청정하면 묘도 응하네.

감응하고 통달해서 한 심인(心印) 받아

묘지혜로 만권경을 두루 비추네.

2. 속진을 벗어나면 너와나 없고

열반을 증득하며 생사가 없네.

극기하여 천하 사람 함께 깨닫고

큰 원을 굳게 세워 온령 건지세.

全 書 總 論

老子的慈懷遠大，關念着世界衆生，作這道德振聾啓矇；作感應講明因果；作清靜指明玄機；真是因人說教無微不至。這番濟世的苦衷，真是泰山之高，滄海之深，都不能比喻盡的。按曆代以來，每次倒裝降世的神妙，人莫能測。故孔子有；「猶龍之嘆」，清靜的真意也。就是佛家所說的：「無餘涅槃」，儒家所說的：「達於至善之地」。

老子願人人歸依清靜，不再受污濁的沾染。所以就首先倡導本來清靜之說；如從大道無形無情無名直至降本流末生出萬物來。惟恐迷人失根忘本，故此又說到：「清者濁之源，動者靜之基，人能常清靜，天地悉皆歸。」，就是讓人知本的意思。因爲明本方能返本，知根始可歸根，又道人神人心，本來也是好清靜的，不過受了一切物慾的引誘，才惹得不安靜了。欲使歸依還須從根本治療才能得致效果。所以必須澄心遣慾才能行呢。然而怎樣才能作到澄心遣慾的工夫呢？須把身心物都看空了方可。但是

老子又恐學道的人，趨入於頑空之境，所以說：「真常應物，真常得性」的道理，又恐獨善己身不能兼善天下。故

老子又說：「雖名得道，實無所得。爲化衆生，名爲得道」。由此看來必須推己及人，方能達於至善。又說：「能悟之者可傳聖道」。這正是給後人開門引線呢。今三期末劫，道應普渡的時候，明師奉命來傳聖道，可是多少愚人，仍然默守舊法，終日參禪打坐，妄想超生，不認金線之覺路，不體

老子的遺言。咳！觀此執迷不悟的人們。只有付之一嘆而已！再說

老子所說的「爭」字「德」字，都是含有很深的意思。爲人若空空得道，不能拋棄假相，妄想起爭奪，則必不能建功立德，始終不能返本達源，亦不能明道德的真意。值此

皇天慈憫，普及衆生，然而尚有不求真道者，實乃堪憐堪嘆。遠隔塵緣根自昧，夙世塵勞何日可了？故而佛曾又云：「心未調伏，何能往生」。耶蘇云：「身背罪，不能回天」。衆生如此迷昧，難免輪迴轉變，流浪生死。

老子又恐慕道者信心不堅，知難而退，望洋而返，復又再三叮囑，說是：「真常之道，悟者自得。得悟道者，自然可以歸依清靜，不生不死了」。按此清靜一經，

不但是修道之至寶也是治世的秘訣。三教聖人都是出世兼入世，明體而達用的，世人多有誤解偏論，究其實在，還不是一己之見嗎？此清靜一書本來天衣無縫，渾然一體，由一本散於萬殊，復由萬殊歸於一本，何有章次之分？今時解成十五章，也就是開一方便之門，便閱讀者的意思。吾

呆叟很希望持讀此書的人，要深體

老子的衷心，實行

老子的衷言，即便

老子在天之靈也會向你點頭微笑呢

「원문풀이」

노자의 자비로운 마음은 멀고 커서, 세계 중생을 염려하여 도덕경을 지어서 귀먹고 눈먼 사람들을 일깨워 주며, 감응편을 지어서 인과(因果)를 강술하여 밝히고, 청정경을 지어서 현기(玄機)를 확실히 가리켜 주심은, 참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미세한데까지 미치지 않은 것 없이 설교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제세하려는 고충은 진실로 태산 같이 높고 창해같이 깊어서, 이루 다 비유하여 나타낼 수 없을 정도다. 생각하건대 역대(歷代)이래 번번이 이 세상에 강생하시는 신묘함은, 사람으로서는 능히 측량할 수 없다. 공자의 : 「용과도 같구나.」 하는 탄식이 있기도 하다. 청정의 참 뜻은 역시 불가에서 말씀한 : 「무여열반(無餘涅槃=아무것도 없는 본래 자리)」 이요. 유가에서 말씀한 : 「지극히 착한 자리(至善之地)에 도달함」 이기도 한 것이다.

노자는 사람마다 천정에 귀의하여 다시는 오락한 세상 물정에 젖어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선 먼저 청정의 법을 제창하셨는데, 대도는 형상도 없고 인정도 없고 이름도 없음에서부터, 근본에서 끝으로 흘러 내려서 만물을 낳은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근본을 잃고 본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또 다시 : 「맑음은 흐림의 근원이요, 움직임은 고요함의 바탕 터니, 사람이 능히 항상 청정할 수 있으면, 천지가 다 돌아오게 된다.」 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근본을 알게 한 것이다. 본래 자리를 밝혀야 본래로 돌아갈 수 있으며, 뿌리를 알아야 비로소 뿌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의 원신과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본래는 역시 청정한 것인

데, 모든 물욕에 유혹을 당하여서, 불안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정 자리에 귀의하도록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근본 치료법을 써야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심을 버려야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심을 버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모름지기 몸과 마음과 물건을 모두 공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노자는 또 도를 배우는 사람이 완공(頑空)의 경지에 빠져 들어갈까 걱정되어 말하기를 : 「진실로 떳떳하여 만물에 응하며, 진실로 떳떳하여 본성을 얻는다.」 는 도리를 말씀하셨다. 자기만 홀로 착하고 천하를 다함께 착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

노자는 또 「비록 도를 얻었다고 이름하여도, 실상은 얻은 바 없고, 증생을 교화하여야, 도를 얻었다고 이름한다.」 고 말씀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니, 반드시 나를 미루어 사람에게 미쳐야 반드시 지선(至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 「능히 깨닫은 이는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다.」 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금선을 이끌어 주신 것이다. 지금 삼기 말겁에, 도가 보도하는 때에 응하여, 명사가 천명을 받들고 와서 성인의 도를 전하시건마는, 어리석은 이들이 아직도 구법을 그대로 지켜, 종일 참선하고 앉아서, 망령되이 생사를 초탈할 것을 생각하고, 금선(金線)으로 깨닫는 길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

노자의 유언을 본받았다 할 수 없구나! 허! 이 미혹에 집착되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저 탄식만 나올 뿐이다! 다시 말하건데,

노자가 말씀하신 「다툼 쟁(爭)자」 와 「큰 덕(德)」 자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서 만일 공덕도 없이 빈손으로 도를 얻으면, 가짜 형상(假相)을 버리지 못하고, 망령스럽게 닦고 뺏을 것을 일삼으면, 반드시 공덕을 세울 수 없으며, 끝내 반본달원(返本達源)하지 못하고, 또한 도덕의 참뜻도 밝힐 수 없다.

황천이 자민하시어 널리 증생을 건지는 이 때에 진도를 구하지 못한 이가 있는데, 실로 불쌍하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멀리 동떨어진 속세 인연에 막혀 근본이 스스로 우두우니, 속세(夙世)의 고생을 어느 날에나 벗어나리?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에 「마음을 조복(調伏)받지 못하고는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하셨고, 예수는 「몸이 죄를 짊어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고 하셨다. 증생이 이처럼 미매(迷昧)하니, 윤회를 되풀이

하며 생사 속에서 유랑함을 면치 못한다.

노자는 도를 그리워하는 이가, 믿는 마음이 굳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퇴축하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고는, 급한 마음으로 되돌아 서듯 중도에서 폐하여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다시 또 재삼 간절히 일러 주시기를 「진상의 도는 깨닫은 이가 스스로 얻으니,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이는, 자연히 청정에 귀의할 수 있어, 생도 사도 없게 된다.」 고 하셨다.

생각전대 이 청정경은 수도의 지극한 보배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치세(治世)와 입세(入世)의 법을 겸하여, 명체(明體)하고 달용(達用)하는 법인데, 세상 사람이 흔히 오해하여 편론(偏論)하고, 그 실재(實在)를 추구하고 있으니, 이는 도리어 하나의 자기 의견이 아니겠는가? 이 청정경 한책이 본래 솔기 없는 신선의 옷처럼, 혼연히 일체가 되어, 한 근본으로부터 만수로 흘러지며, 다시 만수가 한 근본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어찌 문장이나 차례가 있으리오마는, 이제 十五장으로 분해하여 놓은 것은, 역시 한 방편의 문을 열어, 독자가 보기에 편리하게 한 것이다, 나

바보 늙은이는, 이 책을 가지고 읽는 이가

노자의 충심을 깊이 몸받고,

노자의 충언을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노자의 영혼도 그대에게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지을 수 있으실 것이다.

大上老君讚

無微妙道 包羅天地 清靜一書

盡載眞意 歲月來往 古今傳遞

堪嘆衆生 解知妙諦 鎮展將軍

獨釋其意 茲爾緣深 休自暴棄

得善服膺 踐實竭力 成就正果

綿綿永繼

「태상노군이 찬송하심」

1.극히 미묘한 묘도는 천지를 포라하고.

청정경 한 책엔 참 뜻을 다 실었네.

2.세월이 오가는 새에 고금이 바뀌니.

아아! 증생들아. 묘체를 깨달아라.

3.진전장군 홀로서 그 뜻 바로 밝히니.

연분 깊은 그대들 스스로 포기마소.

4.지선을 얻어서 힘 다 하여 실천하고

정과를 성취하여 길이길이 이어가세.

院長大人 註解 清靜經 終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